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9년 4월 7일(주일) 제1240호

2019
고난주간 십야예배

십자가의 흔적

4월 15~19일 오후 9시 온누리교회 10개 캠퍼스 본당
십자가 목걸이 착용, 중보기도, 회개의 십자가 의식

2019 고난주간 십야예배를 드린다. '십자가의 흔적'을 주제로 드리는 올해 고난주간 십야예배는 4월 15일부터 19일까지 오후 9시 온누리교회 모든 캠퍼스 본당에서 진행된다.

설교는 <생명의 삶> 본문으로 이재훈 담임목사가 한다. CGNTV는 고난주간 십야예배 실황을 해외비전교회와 선교지 등지에 생중계한다.

고난주간 십야예배는 개인기도(침묵), 십자가 묵상, 성경읽기(장광 장로, 오미희 권사), 중보기도, 말씀선포, 합심기도, 봉헌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성금요일 예배에서는 솔로찬송(바리톤 김동섭), 가상철연 세리머니, 성만찬 등이 거행된다.

요일별 주제에 따라 중보기도도 한다. 월요일 나라와 민족의 죄 회개, 화요일 나라의 지도자, 수요일 나라의 치유와 회복, 목요일 교회, 금요일 통일을 위해 기도한다.

고난주간 동안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오후 6시 이후 모임을 삼가고 십자가 목걸이를 착용한 다음 고난주간 십야예배에 참석해야 한다. 매일 한 끼 이상 나라를 위한 금식기도를 하고 금식한 금액은 헌금한다. 미디어(TV, 인터넷, 영화, 게임 등) 금식도 병행한다. 교회 로비에 설치되는 '회개의 십자가'에 자신의 죄를 적은 종이를 못 박고 회개하는 의식도 한다.

고난주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신 주일을 의미한다. 이 기간 동안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고난, 부활과 회개를 깊이 묵상한다. 온누리교회는 지난 2012년부터 사순절(四旬節, Lent) 기간에 고난주간 십야예배를 드리고 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장애인주일 '굿월스토어 기증' 캠페인

나눔 실천, 환경 지킴, 장애인 지원

4월 장애인의 달을 맞아 온누리교회와 장애인 고용시설 '굿월스토어'가 함께 '굿월스토어 기증 캠페인'을 실시한다. 수원과 대전은 4월 14일부터 21일까지, 서빙고, 양재, 평택, 강동은 4월 21일부터 28일까지, 남양주 4월 28일, 인천 5월 19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다.

참여방법은 서빙고, 양재, 대전, 남양주, 인천은 교회에 설치되는 '굿월스토어 수거함'에 생활용품을 넣으면 된다. 수원, 평택, 강동은 생활용품을 자체적으로 모아 두면 굿월스토어에서 한꺼번에 수거할 예정이다. 기증 가능한 물품은 집에 있는 손으로 들 수 있는 물건 중에서 재사용이 가능한 의류, 신발, 가방, 잡화, 도서, 음반, 주방용품, 생활용품, 소형가전제품, 유아용품 등이다. 수선이나 세탁이 필요한 의류, 사용한 흔적이 있는 물품, 파손되거나 더러운 제품 등은 기증할 수 없다.

굿월스토어는 일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해 설립된 장애인 고용 시설이다. 굿월스토어에 기증캠페인에 참여하면 나눔을 실천하고, 환경도 지키는 기분 좋은 일이 생긴다. 판매 수익금은 장애인 및 취약계층의 직업재활과 지원고용 등에 쓰인다.

문의: 1670-9125

온누리 안전관리 캠페인 1

봄철 교통사고 안전관리 및 대처방법

안전관리분과위원회에서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생활안전 및 재난안전사고에 대비한 안전캠페인을 실시한다. 그 첫 번째 순서는 봄철 교통사고 안전관리 및 대처방법에 대한 캠페인이다. 본격적인 봄이 시작되는 4월은 원거리 이동이 잦아지는 시기이다. 그만큼 차량 이용이 증가하면서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진다. 교통법규 준수 및 양보운전으로 미연에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또한 4월은 자전거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시기이다. 자전거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은 운전자 부주의(61%)이다. 안전모 착용하기, 과속하지 않기, 자전거 승차 중 휴대전화 및 DMB 시청하지 않기, 야간 전조등 및 후미등 켜기, 자전거 횡단보도 이용하기 등의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꼭 지켜야 한다.

당 회

일시: 4월 13일(토) 오전 6시 서빙고 두란노홀
대상: 전임교역자, 사역, 시무, 협동, 명예장로



책 읽어주는 목사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당신은 아이들에게 육체의 집을 줄 수는 있어도 영혼의 집을 줄 수는 없습니다.”

칼릴 지브란의 <예언자>에 나오는 ‘아이들에 대하여(on Children)’라는 시에 적힌 문장이다.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이 모든 부모들의 마음일 것이다. 하지만 자녀가 성장할수록 부모가 좋은 마음으로 주는 것조차 잔소리로 받아들이는 것이 자녀들의 마음이다.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들은 신앙을 가르치는 대로 흡수한다. <D6 DNA>의 저자 론 헨터는 이 시기 부모의 역할을 ‘경찰관 단계’라고 했다. 이 시기 부모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가르쳐주면서 세상을 살아갈 성경적 세계관의 토대를 마련해줘야 한다. 시간이 흘러 자녀가 고학년이 되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축구코치와 같은 단계’에 접하게 된다. 코치는 훈련은 같이하지만 경기에

는 개입하지 않는다. 이처럼 자녀들이 친구들과 관계 맺고, 선생님의 지도를 받으며 자라갈 때 부모가 자녀의 현장에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대다수 자녀들이 부모의 코치를 받아야 하는 시기에 부모의 적극적 개입(경찰관 단계)에 머문 대화를 하고 있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EBS에서 방영된 ‘아이의 사생활’에서는 어린이에서 청소년 시기로 들어서면서 자녀들은 자기정체성과 자기효능감을 통해서 정서, 인성 발달을 이루어간다고 했다. 이 시기에 ‘내가 이 땅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성경에서 발견하고, 세상 문화를 필터링할 수 있다면 크리스천으로서의 자기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 이 시기 부모의 역할은 자녀들이 이 땅에서 쓸모 있고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즉, 자기효능감을 배우도록 필드를 열어주고 격려하는 일이다. 하지만 많은 경우 이 단계 진입이 늦어

진다. 부모가 자녀에게 적극적인 개입을 하는 것이 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녀에게는 스스로 필드를 뛰어보고 해석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줄 부모의 코칭이 필요하다. 부모가 경찰관이 아니라 코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격려해주는 책을 몇 권 추천하고자 한다.

<불안한 엄마 무관심한 아빠>에서는 부모의 적극적 개입의 이유를 불안에서 기인한다고 설명한다. 양육에 대한 물밑듯 넘치는 정보의 홍수 속에 뒤쳐질 것에 대한 불안에서부터 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집착이 시작된다. 불안과 적극적 개입은 자녀가 자기 효능감을 경험할 기회를 빼앗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 부모의 코칭에 대한 좋은 예는 어디에서 찾아 볼 수 있을까? <부모라면 유대인처럼 하브루타로 교육하라>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행복한 대화법을 소개한다. 스스로 생각하는 아이가 되도록 자녀의 삶의 전반적인 부분을 두고 대화하도록 한다. 대화 속에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부모의 의도적인 대화’ 속에서 아이들은 자기정체성과 자기효능감을 되찾을 수 있다.

<놀이만한 공부는 없다>에서는 아빠와 함께 하는 놀이의 필요성이 저자의 경험을 통해 잘 설명되고 있다.

<핀란드 부모 혁명>은 평생 독서와 놀이를 통해 학습하는 핀란드 부모와 자녀의 가정문화를 안내한다. <헤브루타 그림성경>

은 크리스천 부모들이 자녀들과 성경을 함께 읽고 대화할 수 있도록 부모가 자녀에게 질문할 수 있는 토론 가능한 질문을 제공한 다.

<나니아 연대기>는 부모와 자녀 모두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책이다. 저자는 나니아 세계를 만든 사자 아슬란과 여러 캐릭터들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이 개개인을 어떻게 만나주시실지 상상의 지평을 열 수 있도록 했다. 각 챕터마다 숨겨져 있는 성품의 코드 또한 찾아볼 수 있는 책으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챕터를 정해서 읽고 토론하면 좋을 훌륭한 책이다.

부모의 역할은 자녀가 자기정체성과 자기 효능감을 스스로 배워가도록 돕는 것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영혼의 집을 지어줄 순 없지만 영혼의 집을 지을 힘을 마련해줄 수는 있다. 자기정체성을 알아가게 하고, 자기가 이 땅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차리게 하는 것이 코치로서의 부모가 감당해야 할 일이다.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도록 안내해주는 일과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면서 자기주도적 신앙을 갖게 해주는 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다.



김성욱 목사
(강동 온누리교회)



그때는 이렇게 대답하세요

불법체류자도 섬겨야 하나요?

답: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기 예수님도, 다윗도, 모세도 ‘미등록 체류자’ 신분이었습니까?”

안산M센터에 봉사하러 오신 한 집사님이 질문을 하셨다.

“목사님 불법체류자도 섬겨야 하나요?”

그 질문에 나는 이렇게 답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출입국관리소에 신고하지는 않으셨겠지요?”

나의 답변에 그 집사님께서 웃음으로 수긍해 주셨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약 3만 명 정도의 외국인들이 단속에 적발되어서 강제 출국 당한다. 이들은 여러 사정으로 체류기간을 넘겨 일하거나 불법취업을 했다가 적발되는 경우도 있다. 합법적으로 일하던 공장이 문을 닫게 되면서 다른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본의 아니게 불법체류 신분이 되어 버린 이들도

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외국인들을 ‘불법체류자’라고 부른다. 하지만 이 용어 자체가 범죄자라는 뉘앙스를 강하게 비칠 수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와 해외 주요 매체에서는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UN 국제이주기구(IMO)와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불법체류자’라는 용어보다 ‘미등록 체류자’, 또는 ‘비정규 체류자’로 표기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성경에도 미등록 체류자 신분의 인물들과 이들을 도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종종 등장한다. 이집트의 공주는 “모든 히브리인 남자 아기들을 죽여라”는 바로 왕의 명령을 알면서도 나일강에서 건진 히브리인 아기를 살렸다. 만약 그녀가 이집트법을 따랐다면 모세는 없었을 것이다. 다윗은 반역자로 몰려 도망자로 블레셋에 망명했었고, 아기 예수님도 이집트 난민가정에서 살아야 했다. 만약 이웃들이 이들을 신고했다면 다윗 왕도, 아기 예수도 살아가기 어려웠을 것이다.

온누리M센터를 섬기면서 참으로 다양한 사연을 가진 외국인들을 만나게 된다. 합법적인 체류신분을 가진 이들도 있지만, 여러 가지 사연으로 미등록 체류자가 된 외국인들도 있다. 나는 외국인 형제자매들 속에서 아기 예수님도 만나고, 도망자 청년 다윗, 과부 롯과 같은 이들도 만난다.

나는 적십자사의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아군이든 적군이든 부상당한 모든 이들을 돕는 것처럼, 예수님의 몸 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도움을 요청하는 이들이 합법적인 체류자이든, 미등록 체류자이든 도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십자가 정신이라 믿는다.

물론 온누리M센터에는 ‘불법체류자 자진 출국 기간’ 포스터를 게시하고, 목회자들은 미등록 체류 신분 외국인 성도들에게 자진 출국하도록 권면한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을 지킬 뿐 아니라 세상의 법도 지키도록 가르치고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좋

은 회사에서 많은 월급을 받는 합법적인 외국인보다 미등록 체류 신분이 되어 마음이 가난해진 외국인들이 더 쉽게 복음에 반응하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사실이다. 참으로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임하고, 복음은 낮은 곳에서 더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 같다.

또 한 가지 발견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미등록 체류 신분인 외국인들이 천국에서조차 미등록 신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마음이 가난해져 있는 그들이 한국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등록될 수 있도록 더욱 긴급하게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다.



노규석목사
(온누리M미션)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기도에는 중요한 네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 경배(Adoration), 둘째, 고백(Confession), 셋째, 감사(Thanksgiving), 넷째, 간구(Supplication)입니다. 하나님 되심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시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높여 드리는 경배와 그분 앞에서 우리의 한없이 보잘 것 없음과 연약함, 부족함, 죄악, 허물을 고백하는 자백,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깊은 감사, 우리의 구체적 필요와 사회와 주변의 기도제목들을 올려드리는 간구가 어우러질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으로 볼 때 다윗의 기도는 기도의 모범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 속에는 찬양과 경배와 고백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간구가 잘 어우러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

“그러자 다윗 왕이 성막으로 들어가 여호와 앞에 앉아 기도했습니다”(18절).

다윗이 기도하기 위해 택한 장소는 성막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앉아서 기도했습니다. 단순한 기도의 자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물며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의 기도 내용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오래 머물며 기도한 것은 큰 문제를 해결 받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씩 헤아려보기 위하여 오랜 시간 머물며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큰 문제 앞에서 길어집니다. 아무 문제가 없고 평탄할 때는 기도가 짧습니다. 큰 문제 앞에서 오래 기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위기가 없었습니다. 전쟁이 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정치적 위기도 없었습니다. 가장 풍요롭고, 평안했던 시기가 사무엘하 7장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씩 헤아려 보면서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머물며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지는 기도의 모범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깊이 되새기고, 헤아리고, 묵상하며 다윗처럼 오래 앉아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의 기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여, 제가 누구이며 제 집안이 무엇이기여 저를 이 자리까지 오르게 하셨습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는 이것도 부족하게 여기시고 주의 종의 집 미래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주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방법입니까? 주 여호와께서 주의 종을 아시니 이 다윗이 주께 무슨 말을 더하겠습니까? 주의 뜻에 따라 주의 말씀으로 이 모든 위대한 일을 하였고 주의 종에게 알려 주셨습니다(18b~21절).

다윗은 양을 치는 목자에서 왕이 된 신분의 변화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버지가 왕이었기 때문에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 노력으로 성취한 것도 아닙니다. 그는 사울의 공격을 피해 광야를 도망 다녔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놀라운 신분의 변화로 인하여 다윗이 감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다윗이 감사하고 있는 내용이 그중뿐이라면 성경에 기록될 이유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던 이들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감사한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다윗의 신분 변화로 인한 감사는 10중에서 1도 되지 않는 지극히 적은 부분입니다. 더 많은 감사는 또 다른 이유로 인한 감사입니다. 다윗은 세 개의 수사의문문으로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제가 누구이며 제 집안이 무엇이기여 저를 이 자리까지 오르게 하셨습니까?”(18절), “이것이 주께서 사람을 대하시는 방법입니까?”(19절), “주 여호와께서 주의 종을 아시니 이 다윗이 주께 무슨 말을 더하겠습니까?”(20절)

이 질문들은 의문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의 자리까지 오르게 하신 것부터 사람을 대하시는 방법에 놀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주목하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는 과정에서 자신을 어떻게 대하셨는지를 생각할 때 그 위대하심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 낮아지심, 겸손하심에 다윗이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할 말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말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여드려도 모두 표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표현할 수 없고 기록할 수 없는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정체성과 백향목으로 된 집

“주 여호와여, 주께서는 얼마나 위대하신지요 주 같은 분이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

습니다”(22절).

‘주 같은 분이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전부이며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익숙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삶 속에서 하나님만이 전부인 것처럼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왕정시대의 왕은 하나님과 같은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을 높이지 않았습니 다. 우리도 일평생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주 같은 분은 없고 주님만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다윗의 감사기도가 풍성해진 두 가지 핵심 단어가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에는 ‘주 여호와여’라는 호칭이 일곱 번이나 반복됩니다. 말씀을 읽을 때 반복해서 사용하는 단어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라는 단어에서 ‘주’라는 글자를 쓴 것은 자신이 종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 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을까요? 다윗은 자신이 왕이라는 의식 이전에 하나님께서 왕의 신분을 주신 것이지 자신이 왕이기 때문에 쓰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종 된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감사기도를 만들었던 또 다른 핵심 단어는 ‘집’입니다. 이 기도문을 보면 ‘주의 종의 집’이라는 단어가 일곱 번이나 반복됩니다. 자신의 집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신의 ‘집’은 부동산이 아닙니다. 기도의 주제가 집입니다. 사무엘하 7장 1~17절까지 일어난 사건이 집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간략하게 요약하면 사무엘하 7장의 역사적인 시점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 왕권이 가장 평안했을 때입니다. 경제적으로 부강했고, 정치적으로도 평안했습니다. 다윗왕국이 정점을 이루었던 시대입니다. 다윗이 거주했던 집이 백향목으로 된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계가 있었던 곳은 성막이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백향목으로 된 집에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계가 성막에 있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다윗의 반응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의 언약계가 성막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잠자리가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

를 찾아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합니다. 나단 선지자도 그 마음을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이 나단에게 나타나셔서 책망하셨습니다.

“내가 광야를 지나는 동안 백향목으로 된 집을 지어주지 않았다고 불평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는 집의 크기, 규모, 재료와 상관없이 없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짓는다고? 짓지 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무시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의 마음에는 순수한 부분이 있었 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다고 하는 순간 잘못된 신앙으로 흐를 수 있었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를 책망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발표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집(왕조)을 짓겠다”

“내가 사사들을 세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했던 때와는 같지 않게 할 것이다. 내가 또 너를 네 모든 원수들로부터 구해 내어 평안하게 할 것이다. 나 여호와와 직접 너를 위해 왕조를 세울 것을 선포한다. 네 날들이 끝나고 내가 네 조상들과 함께 잠들 때 내가 네 몸에서 나올 네 자손을 일으켜 네 뒤를 잇게 하고 내가 그의 나라를 든든히 세울 것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해 집을 세울 것이고 나는 그 나라의 보좌를 영원히 세워줄 것이다”(11~13절).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됐다고 하시며 “내가 너를 위해 집(왕조)을 짓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집은 보이는 집이 아니라 왕조입니다. 12절에 나오는 왕조는 솔로몬을 통한 왕조 같은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나라의 보좌를 영원히 세워 줄 것이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만은 아닙니다. 재미있는 것은 히브리어로 ‘벤’은 ‘아들’이라는 뜻인데, 1대 아들도 벤이고, 2대 아들도 벤이고, 100대 아들도 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몇 대인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네 몸에서 나올 네 자손”은 솔로몬도 되고, 솔로몬의 아들도 되고, 그 후의 아들도 되고, 예수 그리스도도 되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의 놀라운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중심적으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라는 말씀에만 “아멘”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나타나는 말씀에 감동하고 무릎을 치면서 성경은 인간 성취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3면에 계속)**

2019 회복축제 '관계의 기쁨'

관계의 기쁨 열쇠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기쁨이자 치유와 회복



관계의 기쁨, 치유와 회복의 열쇠는 '하나님과의 동행'이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곧 하나님과 나, 나와 이웃, 나와 나의 관계를 온전히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유일하고,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다.

지난 4월 3일부터 5일까지 서빙고 온누리교회 본당 및 부속실에서 막 오른 2019년 회복축제 '관계의 기쁨'에서 강의한 치유와 회복 전문가들의 메시지는 부드럽으면서도 강했다. 그리고 단호했다. 진정한 관계의 기쁨이 무엇이고, 그것이 어디에서 오는지, 진정한 관계의 기쁨을 누리는 방법은 무엇인지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알려줬다.

박성심 사모(심리치료사)는 "진정한 관계의 기쁨은 우리에게 'YES'라고 대답하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삶 바로 그것이 관계의 기쁨이요, 치유와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이기원 목사(회복사역본부장)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때 비로소 온유한 자가 될 수 있고, 상대방을 더 잘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재연 소장(리플러스 인간연구소)과 채규만 교수(성신여대 심리학과)는 관계의 기쁨을 누리는 방법을 알려줬다. 박 소장은 "무엇보다 상대방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견지하고 관계에서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에 대한 실제적 실천 방법으로 합리화하지 않기, 정중하게 부탁하기, 용서하기, 칭찬하기 등을 소개했다.

채규만 교수(중독치료전문가)는 "중독은 애착(결핍)과 관련된 심리적 문제"라면서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임마누엘 하나님을 자기 내면에 초대해서 불안정 애착에서 벗어나고 결핍을 채워 나가야 한다"고 권면했다.

박성덕 소장(연리지부부가족연구소)은 연합의 중요성에 대하여 설명했다. 박 소장은 "인간은 접촉과 유대감의 욕구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충족되지 않을 때 상처를 받는다"고 진단하면서 "하나님과의 연합이 상처를 회복하는 열쇠"라고 제안했다.

올해 회복축제 관계의 기쁨은 참으로 풍성했다. 공감대화(김지홍 교수), 관계기술훈련(이기원 목사), 중독과 4가지 애착관계 스타일(채규만 교수), 내 마음이 아픕니다(이정환 목사), 우울증이 주는 관계 잇기의 선물(남윤영 박사), 임마누엘 일기(최용준 목사), 뒤늦게 찾아온 행복(성주명 교수), 자의식을 떠나 주의 식으로(구인유 집사), 조현병과 정신건강 회복사역(장순우 전문의) 등을 주제로 선택강의가 진행됐다. 박성호 성가사, 김혁건 형제, 뉴 프레이즈 트리오(New Praise Trio)가 특선을 선보였고, 치유와 회복 전문가들과 함께 한 회복

토크도 이어졌다.

무엇보다 3일 내내 행사장을 가득채운 1,870여 명의 집회 참석자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안인선 성도(산전교회)는 "행복한 관계는 상대방에게 기쁨과 생명을 주고, 서로를 성숙하게 만드는 관계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고백했다. 이효정 권사(서산 온누리교회)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관계 회복의 시작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면서 "앞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다짐했다.

회복축제 관계의 기쁨 후속 프로그램으로 회복세미나 '임마누엘 기도'가 이어진다. 4월 8일부터 9일까지 서빙고 온누리교회 비전홀에서 오전 10시에 시작된다. 회비는 4만 원이다. 강의는 박성심 사모가 한다.

문의: 02-3215-3532

/ 권찬승, 홍하영 기자

인터뷰

"용서를 구할 것입니다"



저의 자녀가 세 명인데 상대적으로 둘째를 잘 돌보지 못했습니다. 첫째와 셋째에 비해 자기 스스로 모든 일을 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제가 신경을 덜 쓴 것 때문인지 둘째 아이가 감정적으로 안정적이지 못한 부분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아이에게 사과하면서도 늘 저의 행동을 합리화했습니다. 이번 회복축제를 통해서 둘째 아이가 겪었을 아픔을 진지하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이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할 겁니다. 아이와의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로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더 노력할 겁니다.

/ 윤경희 성도(OCC공동체)

"좋은 아버지, 좋은 남편"



저는 아이들에게 매우 권위적인 아버지였습니다. 조금 더 자상하고 따뜻한 아버지가 되려고 노력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와의 대화가 시들해지고, 전만큼 친밀하지 않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잘 몰라 괴로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모든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라는 것을 이번 회복축제를 통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서 좋은 아버지, 좋은 남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최종인 성도(선한목자교회)

"반성하고 사과했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남편과 아이와 대화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의도와 다르게 남편과 아이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는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쉽게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회복축제에 참가하면서 저의 대화 속에 비난, 경멸, 방어 등의 잘못된 습관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많이 반성했고, 아이와 남편에게 사과했습니다. 이번 회복축제를 통해서 제 자신을 돌아보고, 남편과 아이에게 사과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겼습니다.

/ 고지명 성도(부천 온누리교회)

성숙한 관계의 기술



이기원 목사
(온누리교회 회복
사역본부장)

예수님이 힘든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공유하며 관계를 맺으셨기 때문입니다.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많은 시간과 경력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누군가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는 분명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줍니다. 생명과 성숙을 안겨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관계를 통해서 기쁨을 주고받지만 어떤 사람은 관계를 맺으면서

고통을 주고받습니다. 기쁨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해결되지 않은 상처를 치유하고, 생명을 주는 관계의 결핍을 해결해야 합니다. 생명을 주는 관계는 내 생명을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것처럼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미해결된 상처가 회복되고, 생명을 주는 교제가 이루어지면 성숙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온유한 보호자가 되고, 성숙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연약한 자와 강한 자가 교류해야 합니다. 서로 이해하고, 도우며, 교제해야 합니다. 연합함에 온유함으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체의 연합함을 온유함으로 살필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깊이 만나고 교제할 때 온유한 보호자가 될 수 있고, 성숙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환경보다 중요한 관계



박재연 소장
(리플러스 인간
연구소)

환경은 우리의 힘으로 바꾸기 힘들지만 관계는 우리의 노력으로 충분히 바꿀 수 있습니다. 관계를 잘 맺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미안하다”는 말을 할 때 합리화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행동을 지적하기보다는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사과하면 됩니다. 둘째, 칭찬을 자주 하는 것입니다. 칭찬은 상

대방의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습니다. 칭찬을 하되 구체적 사건을 언급하며 칭찬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칭찬이 무미건조하다면 상대방에게 큰 기쁨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셋째, 무엇인가를 부탁할 때는 공손하고 친절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힘을 사용하지 않으면 상대방을 움직일 수 없다는 자동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중하게 부탁하면 상대방과 관계가 깨지지 않으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넷째, 서로를 용서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에 대한 깊은 이해입니다. 상대방이 왜 그렇게 밖에 행동할 수 없었는지를 알게 되면 용서하는 게 쉬워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어떤 말을 주고 받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중독의 심리적 기제와 임마누엘 치유기법



채규만 교수
(성신여자대학교
심리학과)

중독에 빠진 사람은 심리적, 영적인 면에서 애착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결여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독의 과정 속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는 할 수 없어’라는 생각에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라는 생각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안과 스트레스 상황이 있을 때 중독물이나 행위를 찾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 안에서 기쁨

을 누리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통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 진정한 마음을 드리면서 이겨내셨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외상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따라가야 할 모델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영적인 눈을 들어 위로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의 고통을 보시며 안타까운 눈물과 사랑의 눈물을 흘리시는 주님을 만날 때 고통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듯이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를 경험하고 회복되어서 건강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연합의 기쁨



박성덕 소장
(연리지부부가족
연구소)

하나님께서 연합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홀로 있는 모습을 좋게 여기지 않으시고 하와를 붙여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연합입니다. 이 연합이 주는 기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사랑은 연합입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서로 연합하면 상처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연합하고 이해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연합은 가정을 살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에게 일과 판단능력을 주셨고, 여자에게는 관계를 추구하는 감성을 주셨습니다. 서로가 가진 좋은 것으로 가정을 세울 수 있습니다.

셋째, 연합은 상처를 회복합니다. 과거 애착 대상으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았을지라도 타인과의 좋은 관계를 통해서 그 상처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넷째 연합은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우리의 연합함을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연합에 있습니다. 연합을 통해서 서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연합을 배우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는 법을 배우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엮는 YES



박성심 사모
(심리치료사)

관계에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훌륭한 관계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관계의 달인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관계에서 폭탄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폭탄 같은 사람들이 보여주는 관계의 특징은 비난, 방어, 경멸, 벽쌓기 등입니다.

그 중에서 경멸은 관계에서 가장 치명적입니다. 경멸에는 “내가 너보다 한수 위”라는 제스처가 담겨져 있는데 경멸을 당한 사람은 큰 아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말에 방어를 하거나 담을 쌓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을 쌓는다는 것은 상대방의 말을 무시

하거나 대답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대방이 담을 쌓고, 내 말에 대답하지 않는다고 더 몰아붙이게 되면 관계회로가 꺼지기 쉽습니다. 관계회로가 꺼지면 행복한 관계를 결코 맺을 수 없습니다.

관계회로를 켜는 방법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관계의 달인은 상대방의 작은 배려에도 고맙다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 이 감사하는 습관이 하나님, 이웃, 자신과 행복한 관계를 맺도록 만들어 줍니다.

나, 이웃, 하나님과 행복한 관계를 맺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이해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다른 사람들이 “YES”라고 대답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항상 “YES”라는 대답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NO”라는 대답을 듣기도 합니다. 부모와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에서 “YES”라는 대답을 많이 듣고 자란 사람들은 안정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의 어려움을 겪더라도 금방 극복합니다. 안정애착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YES”라고 대답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 관계의 회복이 저절로 일어납니다.

두려움이 아닌 사랑의 줄로 엮이자

우리의 뇌에는 어린 시절 두렵고 나쁜 것들에 대한 기억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웠던 기억과 비슷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움츠러듭니다. 그런 스스로가 너무 바보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릴 때는 그 두려움을 극복할만한 힘과 능력이 우리 안에 없었습니다. 두려움은 어릴적 부모님이 채워줘야 할 자리가 결핍되어 생기기도 합니다. 결핍된 그 자리에 하나

님이 함께 해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혼자 있다고 생각할 때도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이미 붙어 있습니다. 이 관계의 실체를 영적인 눈으로 보는 게 중요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눈을 들어 주위를 살펴봐야 합니다. 외상과 두려움에 갇혀 있는 사람들의 초점은 과거에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두려웠던 감정들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현재에 초점을 둘 수 있도록 주위를 둘러봐야 합니다.

둘째, 양손으로 자기 자신을 감싸 안아주면서 주님이 나를 안아주고 있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신음을 들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온누리신문 · CGNTV 공동기획

가정예배를 생활화하자!

믿음은 부르심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합니다

가정예배 양식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찬송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새찬송가 430번)	다같이
아버지 사랑합니다(경배와찬양 186번)		
기도		말은 이
성경봉독	히브리서 11:8~10	다같이
설교	‘믿음은 부르심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합니다’	말은 이
말씀과 일상 나누기		다같이
기도제목 나눔과 중보기도		다같이
찬송	완전하신 나의 주(경배와찬양 248번)	다같이
주기도문		다같이

믿음은 부르심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은 부르심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합니다’예요(말씀은 가족들 모두 한목소리로 복창). 아빠가 너희들을 부르면서 “나와 같이 어디 좀 가자” 할 때

아빠를 믿으면 그대로 따라갈 것이고(순종), 아빠를 믿지 못하면 따라가지 않겠지요? 아빠 대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얘야, 나와 같이 어디 좀 가자” 하실 때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겠지만, 믿음이 없으면 따라가지 않겠지요? 믿음은 어디로 가는 길인지도 모르면서 부르는 분을 의지하는 거네요? 잠깐,

그게 가능할까요?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 가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믿음은 모든 지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분께 전폭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겠어요. ‘틀리면 어떻게 하지?’

그러나 그 질문 자체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높고, 우리 능력보다 엄청나게 크신 분이예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고, 믿을만한 분이고, 믿어야 할 분이고, 믿을 수밖에 없는 분이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드신 분이고, 엄마아빠를 만나게 하신 분이고, 너희들을 엄마아빠에게 맡겨주신 분이예요. 너희가 커서 때가 되면 부모를 떠나 누군가와 가정을 만들게 하실 분이예요. 그 모든 프로그램의 키를 쥐고 계신 주인이세요. 우리는 토기이고, 그분은 토기장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뜻입니다.

믿음은 순종이고, 순종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는 “걸어가고 걸어간다”고 표현합니다. 계속 앞을 향해 걷고 또 걷는 거예요. 우리 생활에 적용한다면 매일 학교 가는 것, 매주 교회 가는 것, 가족들과 이야기하는 것 등이 쉼이요. 어디로 가나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브라함은 순종하면서도 어디로 가는지 몰랐대요. 아마 그날그날에 충

실하기만 했나 봐요. 모르면서 어떻게 갈 수 있을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혼자가 아니니까 걱정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은 혼자가 아니예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동행해 주세요. ‘임마누엘’이란 말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뜻으로, 예수님의 이름이었지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인생이 아주 좋아요. 아멘?(평생토록 하나님과 함께 걷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또 목적이자 ‘유업으로 받을 곳’이기 때문에 걱정 없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시고 건축하신 견고한 터 위에 세워진 도시” 즉, 하나님의 나라예요. 와, 좋겠다.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건축하신 터 위에 세워졌다. 얼마나 굉장할까? 정말 기대가 돼요.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 당연히 변하지 않는 곳이었지요? 와, 대단하겠대!(변치 않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열심히 살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오늘 나는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까? 내게는 무슨 일이 믿음 곧 부르심에 순종하는 일일까? 잘 생각해보고 나누어 봅시다. 예를 들어 과제물 충실히 하기, 책읽기, 말씀암송, 전도, 휴대폰 보는 시간 줄이기 등이예요.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무슨 일을 하도록 부르셨는지 잘 생각해보고 순종하며 실천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기고



최승구 목사
(가정사역본부장)

신앙은 태도다. 태도는 인격에서 나온다. 인격은 가치관의 영향을 받는다. 가치관 형성은 성장기에 사물과 상황에 대한 크고 작은 생각들이 쌓여서 생긴다. 인격이나 가치관 형성에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것을 보고 어떻게 느끼는지 그것들이 축적되며 형성된다. 그래서 인격이나 가치관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 후천적으로 만들어진다.

우리 모두는 자연인으로 태어나 ‘원죄’라고 부르는 본질적 악함이 있다. 그러나 성경을 접하면서 생명의 말씀을 배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죄를 떠나 영적 성장을 이룰 수 있게 되었다. 가정예배는 바로 그 성장을 이끌며, 선으로 영성을 무장하고 사랑의 공동체성을 익히는 곳이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싶다고 말한다. 어떻게 하면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신앙인의 인격을 만들어주나? 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예배다. 가정예배는 예배로써도 중요하지만, 동

시에 자녀교육의 좋은 방법이기도 한다.

가정예배의 유익이 많다. 첫째, 자녀에게 예배의 중요성을 알려줄 수 있다. 자녀들에게도 나름대로의 스트레스와 좌절이 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통해 나름대로의 고통을 극복하고, 소망의 원천을 알게 된다. 스스로 돌아보며 깨닫고 죄와 결별할 수 있다. 훗날 성장한 후에도 하나님과의 만남, 기도와 응답,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삶을 살 수 있게 한다. 둘째, 개인적인 큐티를 나눔으로써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의 자리가 될 수 있다. 부모가 자녀들의 눈높이에 맞춘 예배를 준비함으로써 세대 간 간격을 좁힐 수 있다. 성경말씀과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어떤 고민이 있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알게 된다. 셋째,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줄 수 있다. 공동체의 시작은 가족이다. 가족 간 관계 연습을 통해서 공동체성을 습득하며 사랑을 배운다. 공동체의 중심축이 예배임을 알게 함으로써 늘 예배 중심의 삶을 지향하게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가정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효율적일까?

첫째, 자녀들에게 눈높이를 맞춘 예배라야 효과가 있다. 자녀가 속한 문화권 이해가 전제된다. 때분엔 예배가 되면 다음번에는 모임이 기대되지 않고 회피할 수도 있다. 따라서 자녀들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믿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록 예배 형식은 자녀들의 연령과 관심 분야에 따라 탄력적으로 바꾸는 것이 좋다. 유아기 때는 찬양과 율동을 많이 가미하고, 학생 때는 그들의 관심을 모을 수 있는 환경에서 예배드린다. 좋아하는 TV 프로그램 직후에 같이 예배드리거나 예배드리고 나서 좋아하는 음식(피자나 치킨 등) 나눔을 예고하며 예배드림도 좋을 것이다. 둘째, 본문은 가급적 큐티 말씀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평소에도 스스로 큐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익숙한 말씀의 연속성이 있어서 평소에도 적용 등을 나눌 수 있다. 셋째, 예배순서에 자녀들이 참여하게 함이 좋다. 사회, 찬양 선곡, 기도 등을 가족들이 나눠서 한 부분씩 만들어 감이 좋다. 넷째, 대부분의 자녀들에게 부모의 설교는 그다지 환영받지 못한다. 주입식 훈계나 가르침은 율법화, 혹은 틀에 넣으려는 시도가 될 수 있다. 솔직한 고백, 자유로운 질문 유도 등은 자녀들 생각 깊은 곳에 있는 것들을 끌어올리게 한다. 가족들 각자의 기도제목 나눔도 마찬가지다. 고민, 욕심, 희망 등을 솔직히 털어놓고, 부모의 사랑을 자녀에게 주유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가정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 있다. 부모가 평소 말씀과 생활이 일치되어야 한다. 최소한 노력하는 모습이

전하지 못하더라도 그에 대해 솔직히 고백하고, 필요하면 자녀들에게도 용서를 구한다면 자녀들도 감동한다. 삶의 모든 과정이 예배임과 지속적인 죄 고백과 용서받음의 확신, 욕심과 자랑 내려놓기, 십자가의 중요성, 소망의 불변성 등을 어릴 때부터 조금씩 맛보게 함이 가정예배이며, 신앙인 부모의 의무이다.

우리는 지금 세상의 영향을 끊임없이 받는다. 광고, 미디어, 인터넷 등이 안목과 육체의 욕망을 자극하며 신앙인의 가치관을 끊임없이 흔들고 창조질서마저 무너뜨리려는 악의 강력한 영향 하에서 살고 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들도 믿음으로 무장한 천국의 자녀들을 이길 수 없다.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다. 가정예배를 통해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군사로 거듭나게 된다. 부부 갈등도 예배로 극복하고, 자녀문제도 예배를 통해 해결된다. 믿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꾸준히 지속되어야 한다. 가정예배는 가정교육이며, 온전한 신앙인을 만들어가는 길이다.

CGNTV 가정예배 프로그램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

매주 주일 오후 8시 30분

문의: 02-796-9800, www.cgntv.net

만나고 싶습니다

“교회가 하늘만큼 땅만큼 좋아요!”

아부다비 스페셜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정도담’ 자매

양재 사랑부 정도담 자매(26세)가 ‘2019 아부다비 스페셜올림픽’에서 롤러스케이트 종목 은메달을 획득했다. 스페셜올림픽은 발달 장애인들이 참가하는 국제경기 대회다. 올림픽, 패럴림픽과 함께 국제 올림픽 위원회(IOC)가 인정하는 3대 올림픽 중 하나다.

아부다비에서 돌아온 지 1주일 만에 만난 정도담 자매는 발달장애 3급 장애인이다. 태어나면서 뇌를 다쳐 장애를 갖게 되었다.

“태어날 때 호흡이 끊기는 사고가 있었어요. 한 달 반 넘게 인큐베이터에 있었어요. 엄마는 저를 낳다가 돌아가실 뻔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녀는 자신의 장애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었고, 그것에 대해 창피해하거나 좌절하지 않았다. 오히려 가족들을 걱정하는 어른스러움이 있었다.

정도담 자매는 여러모로 특별한 점이 많다.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딸 정도로 운동을 잘 할 뿐만 아니라 영어도 아주 잘 한다.



교회와 하나님 사랑만큼은 금메달리스트인 정도담 자매(좌측 하단 사진은 아부다비 스페셜올림픽 시상식).

“어릴 때 스페인에서 살다 왔는데 거기서 영어를 배웠어요. 올림픽에 나가면 외국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서 좋아요. 그동안 사용하

지 못했던 영어도 많이 하고, 사회성도 길러지는 것 같아요.”

정도담 자매에게 가장 특별한 점은 역시 신

앙이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온누리교회를 다녔다. 어린 시절 다닌 특수학교 선생님이 양재 사랑부 코치로 섬기고 있었던 게 인연이 됐다.

“전인진 선생님께서 양재 사랑부를 추천해 주셨어요. 선생님과 함께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서 친구들도 만나고, 선생님, 코치님, 전도사님을 만나서 너무 좋았어요. 같이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캠프도 가고, 주일에는 아침 일찍부터 선생님들과 함께 예배를 준비해요. 저는 교회가 하늘만큼 땅만큼 좋아요.”

밝고, 다부진 정도담 자매에게는 꼭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다.

“매일 성경책 읽고 큐티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깨닫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희망이 생기거든요. 역시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늘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특별기고



주선애 교수
(장신대 명예교수)

1928년 창설된 ‘여전도회전국연합회’가 1929년 9월 새문안교회에서 제2차 총회를 열었다. 제일 먼저 총회에서는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결정하였

다. 세계 선교의 대상은 중국 여성들이었다. 그간 ‘대국(大國)의 여성’이라

고 생각했던 중국 여성들이 발을 묶고 다니는 것(纏足)을 보며 긍휼의 마음이 들어 그들을 복음으로 해방시켜야겠다는 생각으로 일치하게 되었다. 다음 해 예수교장로회총회로부터 허락을 받고 1931년 9월 11일 금강산 기독교 수양관에서 제3회 총회를 갖고 자랑스럽고 감격스러운 첫 선교사 파송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 그때 첫 여성선교사로 김순호 선교사가 파견되었다. 한국 여성사역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된 것이다. 그 오랜 세월동안 가난과 무지 속에 갇혀 사는 것에만 익숙했던 한국 여성들이 구속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서 자아(自我)를 발견하고, 동시에 세계 사회에 대한 선교적 소명을 발견한 것이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게 되었다. 놀려 있었던 것만큼이나 폭발적인 기세로 세계 선교

에 뛰어들었다.

하나님께서 일찍부터 한국 여성을 통해 세계 선교를 일으키시고자 김순호 한 사람을 미리 여성선교사로 선택하셨던 것이다. 한국 여성을 통하여 세계 선교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여성들을 일깨워 주셨고, 크고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이다.

김순호 선교사는 황해도 재령읍 동부교회 김두한 장로의 딸로서 1902년 5월 15일 태어났다. 서울정신여학교를 졸업한 이후 일본 ‘요코하마여자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한국에 돌아왔다. 여학교 교사로 일하다가 고향 교회인 재령동부교회 전도사로 일하던 중에 여전도회연합회에서 중국 선교사를 공모하였을 때 파견되어 중국 산둥성에 독신 여성선교사로 파송되었다. 김 선교사는 산둥성에서 故 방지일 선교사와 함께 중국인들을 전도하고, 성경을 가르치며 많은 열매를 거두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이 전쟁을 하므로 부득불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귀국 후에는 한국을 순회하고 만주까지 다니며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난 죽어도 거짓말은 못해”

1945년 광복의 기쁨을 맞이하면서 닫혔던 평양신학교가 다시 개강하게 되면서 이전에 없었던 여성부가 만들어졌다. 그때 마침 중

여전도회 최초 선교사 김순호

국 선교지에서 돌아온 김순호 선교사를 신학교의 여성부 사감 겸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로 위촉하게 되었다. 전국에서 모여든 여성부 학생 수십 명은 신학교에 여성 교역자들의 양육의 길이 열려진 것을 기뻐하였다. 또한 훌륭한 선생님을 모시고, 성경을 배우며, 새로운 세상을 사는 것처럼 즐거운 삶을 맛보고 있었다. 그러던 중 환란이 또 다시 닥쳐오고 말았다. 김일성이 권력을 잡고 강성해지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그때 여학생 기숙사에 머물고 있었던 몇몇 여학생들(이연옥, 조순덕, 김병숙 등)이 모여서 남한으로 탈출하기로 결정한 후에 김순호 선교사를 찾아갔다.

“우리 몇 사람은 서울로 피난가기로 결정하였는데 선생님을 모시고 가기로 했습니다. 선생님 같이 가십시오. 꼭 함께 잘 모시고 가겠습니다. 선생님도 준비하세요.”

선생님은 태연한 표정으로 “나는 못 가! 당신들이나 가라”고 하였다. 학생들은 놀란 표정으로 “아니 선생님? 왜 못 가세요? 자녀가 있나요? 많은 재산이 있나요? 못 떠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라고 물었더니 “당신들이나 여서 가라고 나는 못 가”라고만 하였다. 학생들은 어린애들처럼 졸라댔다. 그때 선생님이 진정한 속사정을 털어놓으셨다.

“가다가 인민군을 만나면 거짓말을 해야 한다면서? 나는 죽어도 거짓말은 못해. 아무래도 죽을 것이라면 나는 북쪽으로 더 올라

가서 한 마리 양이라도 더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갈 거야.”

대답은 단호했다. 학생들은 거짓말이 하기 싫어서 죽음을 결단하시는 선생님의 말씀에 마음이 찢렸지만 돌아오고 말았다. 그것이 마지막 이별이었다. 선생님의 거룩한 결단은 그대로 이루어졌다. 선생님은 신의주로 올라가서 교회전도사로 시무하시던 중 어느 날 새벽기도 때 폭도들에게 끌려간 이후 소식이 끊어졌다. 순교하신 것이다.

순교자가 된다는 것은 환난 중에 우연히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순교자의 영적생활 그 자체가 앞서야 순교자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분의 순교는 장로회 총회 선교부 총무였던 이권찬 목사님에 의해 확인되었다. 중공군과 인민군이 북으로 쫓겨 올라갈 때 같이 따라 가셨던 이권찬 목사님이 그분의 시체를 직접 봤다고 증언하셨다.

김순호 선교사는 마음에 흡족할 만한 선교가 되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면 하나님께 나아가 금식하며 자기의 죄를 더 철저하게 회개하는 기도를 하였다. 그래서 그의 말씀에는 능력이 함께 했다.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상 받을 준비가 되었나요?” 등으로 회개를 촉구하곤 했다. 그의 열정적인 부르짖음에 중국과 만주에서 많은 열매가 거두어졌다. 그분은 주님의 피가 흐르는 사랑의 실천과 회개의 열정이 흘러넘치는 삶을 사셨다. 그의 설교는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기본으로 한 회개가 강조되고 있었다.

3.1운동과 한국교회: 개혁신학적 성찰(IV)

교회 지도자들과 선교사들의 역할

기독교 지도자들의 민족구원 신앙



김영한 박사
(기독교학술원장 /
살롱나비 상임대표 /
송실대 기독교학대학
원 설립원장)

3.1운동은 실제적으로 기독교가 주도한 운동이었다. 33인 중 16명이 목사였고, 태화관에서 불교도인 한용훈의 만세 삼창을 끝으로 33인 모두 연행되었지만, 탑골공원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것은 경신학교 출신의 정재용이었다. 전국에서 이 운동이 일어날 때 집결지는 교회나 기독교학교였고, 앞장선 사람들도 기독교학교 교사거나 학생들이었다. 3.1운동에 참여했던 기독교 민족 대표는 민족적 양심과 종교적 신앙심을 연결시켰다. 오산학교 교장 이승훈 장로, 서울 수표교교회 신석구 목사가 그 대표적 인물이다.

이승훈 장로는 기독교와 천도교의 합동 거사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그는 거사 후에 체포되어 심문받을 때 일본 재판장 앞에서 3.1운동은 하나님에 주신 기회였고, 민족적 자존심이 일본의 수모를 견딜 수 없다고 참가 동기를 피력하였다.

“나는 한일병합 이래 언론, 출판, 교육 등의 자유를 피탈 당하였으므로 한일병합에 대하여 불만의 감회를 가지고 있었다. 금번 천제가 행복을 내려주는 시기에 조우하여 천하일반의 사람이 같이 생을 하도록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였다.”

감리교에서 순교자로 추앙받는 서울 수표교교회 담임 신석구 목사는 3.1운동 참여 요청을 받았을 때 “나는 하나님의 종이니 이 큰 일을 하나님과 의논하고 결정하겠다”고 하였다. 그는 3일을 작정하고 기도하던 중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의 음성을 들었다.

“4천년 전하여 내려오던 영토를 네 대에 와서 잃어버린 것이 죄인데 찾을 기회에 찾아보라고 힘쓰지 아니하면 더욱 죄가 아니냐.”

그래서 신석구는 조선 독립의 필요성을 감지하여 독립운동은 목회자로서 해야 할 목회의 일부라고 생각하였다.

“나는 조선은 조선민족으로 통치하려고 생각하였다. 조선은 일본이 약탈하기 때문에 일본은 조선의 원수라고 하지만 우리들은 신에게 몸을 바치고 있으니 그 원수를 갚겠다고 하지 않고 신의 마음으로 조선을 독립시킬 것이다.”

재판장이 “한일합병 전의 조선은 대단한 악정(惡政)으로 인민은 노예와 같은 대우를 받고 있었으나 합병한 후로부터는 자유와 행복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양화진외국인선교사묘원’.

을 누렸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가”라는 교만한 질문을 하였을 때, 신석구는 “병합한 후 조선은 식민지가 되어 조선 사람은 열등한 대우를 받고 있는데 조선인민에게 행복이 올리가 없다”고 반박하였다.

3.1운동은 당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던 해외 선교사들에게는 비밀로 부쳐졌다. 나중에 3.1운동을 해외에 적극 알리는 역할을 했던 스코필드 선교사에게만 며칠 전에야 통보됐다. 그만큼 철저하게 서로를 믿고 움직였다.

서양 선교사들의 인도주의적 역할

3.1독립선언서는 민족자결의 원칙에 입각해 있다. 하지만 3.1운동 지도부는 그 당시 미국의 제국주의 정책의 흐름을 알지 못했다. 1905년 을사조약이 이루어질 때 미국 정부 또한 제국주의 식민지 정책의 선봉이었고, 미정부(윌리엄 식민지화, 당시 대통령 시어도어 루즈벨트)의 육군장관 윌리엄 태프트(William Taft, 루즈벨트가 재선 거부로 후임 대통령으로 선출됨)는 일본의 내각총리 가쓰라 다로(桂太郞, Katsura Taro)와 그 유명한 가쓰라-태프트 밀약(The Katsura-Taft Agreement)을 맺어 미국의 필리핀 통치와 일본의 조선 통치를 암묵적으로 상호 동의하는 제국주의 정책의 절정을 보여준다. 이는 아무리 윌슨 대통령이 평화에 기반한 사상을 가졌다 한들 미국 전반의 제국주의 기조의 정책은 변하지 않는다는 역사적 사실을 보여준다. 가쓰라-태프트 밀약(1905년)이 상징하는 바는 당시 미국 정권의 제국주의 정책이 교회의 선교정책에도 영향

을 미쳤음을 추정할 수 있다.

민중신학자들은 제국주의 정책 하의 교회는 정부로부터 지속적으로 정교분리(정치와 교회의 분리)의 원칙을 강요당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흐름은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 및 당시 기독교계 내의 개인주의적 회심을 강조한 신학과 맞닿아 있다고 해석한다. 그러나 정통 개신교의 견해에 의하면 평양시에서도 종교와 정치는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카이퍼의 영역주권 원리(principle of sphere sovereignty)에 따라서 서로 간섭하거나 혼동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구약성경에서도 종교와 정치는 구분되었다. 단 예언자들은 종교적 직임을 가진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3자로서 제사와 정치의 윤리적 부패와 하나님 말씀으로부터의 이탈에 관하여 비판할 수 있었다. 민중신학의 초창기 한국 교회의 보수적 경향과 신앙적 부흥에 대한 비정치화 해석은 한국 교회의 초창기 영적 각성운동이 마치 제국주의적 정교분리 정책에 의하여 만들어진 선교사들의 인위적인 선교정책의 산물로 해석하는 왜곡에 빠질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1904년과 1907년 원산 및 평양 영적각성운동에 일어난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를 부정하는 것으로 왜곡될 수 있다. 동일한 제국주의적 상황 속에서 한국보다 먼저 선교 받은 중국이나 일본, 동남아에서 한국 교회에서와 같은 영적각성운동은 일어나지 않았다.

3.1운동 준비과정에서 외국 선교사들은 외국인으로서 일제 총독부와 마찰을 가지지 않으려 배제되었으나 막상 만세 및 시위운동이 펼쳐지고 난 후 이들 선교사들의 역할이 너무

나 컸다. 한국 교회 지도자들은 3.1운동을 일제와의 갈등과 선교사업에 올무가 되지 않도록 선교사들에게 전혀 사전에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막상 3.1운동이 시작되었을 때 선교사들은 놀랐다고 한다.

“일본이 3.1운동을 선교사와 관련시키려 하나 우리가 아는 한에 있어서는 선교사들은 이 운동에 처음부터 관여한 바도 없고 또 자세히 아는 바도 없었다. 3.1운동이 터짐으로 일본 제국만 놀란 것이 아니라 선교사들도 깜짝 놀랐다. 어느 장로교 선교회의 보고서는 ‘이 운동이 그들에게 청천벽력과 같이 왔다’라고 언급하고 있다.”

선교사들은 정치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피하고 표면적으로는 정교분리정책을 표방했다. 북장로교 선교부는 ‘비참여 원칙’과 ‘정신적 차원의 고수’를 표방하였다. 하지만 이들은 내면적으로는 건전한 민족주의 육성과 항일 민족독립운동을 위하여 큰 역할을 해주었다. 뜻하지 않게 찾아온 3.1운동으로 인해 외국인 선교사들은 담임목사들과 선교부 직원들이 대거 투옥되고 교인들이 뒤따라가는 등 교회 운영에 차질이 생겨지는 것을 보고 당황하면서 우려를 표명하였다. 선교사들은 무력으로 약소국 조선(朝鮮)의 국권을 강탈한 일본의 무단(武斷)정치에 대하여 비판적인 시각을 가졌고, 일본 군국주의가 무력으로 추구하는 동아시아연대(1938년에는 대동아공영권(大東亞共榮圈)으로 2차 세계대전 개전을 정당화)의 이상이 기독교 가치와 일치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었다.

일제의 탄압을 세계에 알리고, 조선 독립의 정당함을 알림

지난해 3.1절 99주년 기념으로 3월 1일 오전 11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연속 방영된 KBS1TV 3.1절 특집다큐 2부작 <이방인과 3.1운동>은 3.1운동에서 기독교 선교사들의 역할을 조명하였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했던 외국인들의 기본 원칙으로 인하여 선교사들과 3.1운동의 연관성은 좀처럼 알려지지 않았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조선과 운명을 함께 했던 이들이 남긴 각종 기록과 자료에서 놀랍게도 3.1운동과 일제 저항의 흔적이 하나둘 그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3.1 운동! 삼시간에 전국적인 대규모 시위로 변저 나간 배경에 조선 정작 후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가 있었다. 미션학교의 교사와 학생들이 학교를 기반으로 한 지역의 만세 운동을 주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선교사들은 위대한 평화와 인권, 자유 독립의 운동으로 전 세계에 충격을 던졌던 3.1운동을 국경을 넘

어 국내외에 일제의 부당함을 알리고, 조선 독립을 염원했던 전 세계에 숨어 있는 저항의 기록을 전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31만세운동 8일 후 1919년 3월 9일 일본 총독부 내부국장이었던 우사미가 주선하여 일본 감리교선교사 스미스(Frank H. Smith) 집에서 총독부 고위관리들과 선교사들과의 회담이 있었다. 감리교 선교사로는 노블(W. A. Noble)과 하디(Robert A. Hardie), 장로교 선교사로는 게일(J. S. Gale), 에비슨(O. R. Evison), 샤록스(A. M. Sharrocks), 밀러(Hugh Miller), 베른하젤(C. F. Bernheisel) 등이 참가하였다.

우사미는 일본측의 입장을 대변했는데 한국의 독립과 인도주의는 좋으나 독립은 한국인을 분열로 이끌테니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였다. 이에 대하여 선교사들은 이의를 제기하면서 한국인의 입장에서 대변하였다.

게일(J. S. Gale)은 조선 독립 허용을 지지하였다.

“한국인들은 정신적인 공포 속에 살고 있다. 한국 사람들은 다른 민족이기 때문에 그들 자신의 민족적 노선으로 발전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노블(W. A. Noble)은 일본이 만족할만한 프로그램을 제시 못했다고 말했다.

“한국 사람들은 모든 희망을 잃어버리고 그들의 유일한 희망은 일본 정부와 분리라고 느끼고 있다.”

하디(Robert A. Hardie)는 한국인의 성인됨을 피력하였다.

“한국인들은 이제 어른이 되었다. 그들은 그들의 민족적 노선에 따라 그들 자신의 운명을 실현할 기회를 원하고 있다.”

에비슨(O. R. Evison)은 스코틀랜드와 영국 사이의 서로 보완을 예를 들면서 한국인의 독립의지를 지지하였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역사가 존경되기를 원하고 있으며 자기들의 언어가 보존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들은 자치정부가 시작되기를 원하고 있다.”

베른하젤(C. F. Bernheisel)은 한국민의 불안의 감정을 대변하였다.

“불안의 감정은 학교 교실에도 만연되어 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언론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어느 때에 체포되어 감옥에 갇히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한국의 기독교인들은 그들에게 가해진 탄압에 대하여 불안을 가지고 있다.”

선교사들은 31운동에 참여한 기독교인들을 설득해 달라는 조선총독부의 요청을 세 가지 이유로 거절하였다. 그 이유는 ‘정교분리,’ ‘한국인 신임 배반할 수 없음,’ ‘비(非)교인들 간섭은 무익하다’였다. 선교사들은 자신들에게까지 비밀에 부치며 진행한 만세운동이었지만 31운동에 대한 암묵적 지지를 함으로써 한국 교회가 민족 교회로서 자주적인 애국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선교사들의 관심사는 독립과 같은 정치적 문제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조선총독부와 일제로부터 치외법권을 확보하여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하고, 인도주의에 호소하면서 “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더불어 포화와 고문, 비인도적 학대, 종교적 탄압, 대량 학살이 이 세상에서 어디서나 사라져야 한다”고 천명하였다.



윌리엄 린튼 선교사가 쓴 기사 ‘한국인들이 어떻게 자유를 추구하는지에 대한 한 애틀랜타인의 증언’.

평양에 활동했던 익명의 선교사가 초기 31운동 관련 자료를 모아 10부로 구성된 ‘한국 독립운동 발발’이라는 보고서에는 한국 독립운동의 개시부터 전개 과정까지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이 보고서의 9부에는 세브란스 병원 교수였던 스코필드 선교사가 현지를 답사하고 남긴 ‘수원 제암리의 대학살’, ‘수춘 만행 보고서’, ‘화수리의 살인사건’과 더불어 1919년 6월 5일자 상하이 가제트에 실린 피터스(당시 일본 東山學院 교장)의 ‘한국에서 일본의 도덕적 실패-일본 정부와 국가의 책임’

의 민족자결주의에 관한 소식을 안창호, 이승만 등에게 전하였다. 시위자를 돕던 마펫(S. A. Moffett)은 일제의 만행이 ‘훈족(the Huns)’처럼 잔인하다고 비난하였다. 숭실학교의 선교사 모우리(E. M. Mowry)는 독립선언서를 영역하고 피신한 학생들을 도와주었다는 죄명으로 6개월간 투옥과 강제 노동을 당하였다. 스코필드(F. W. Scofield)는 31운동에 관련된 문서와 사진을 수집하여 선교부에 보고하였다. 캐나다 장로교회는 1919년 6월 총회에서 일본의 야만적 탄압과 고문에 강경한 반대

“선교사들의 3.1운동 역할은 외부에 알려 국제 여론을 조성하고, 한국의 독립요구 정당성에 공감하고, 피해자들을 치료하고 위로하고 보호하고, 자유와 권익을 확대하도록 압력 가하고 역사적 기록으로 남겨 전수한 것이다.”

이라는 기고문도 편집되어 있다.

선교사들은 한국에서 계속 선교활동을 하는 한 일본의 비인도적 만행을 규탄하고 독립운동을 공개적으로 지지할 수 없었다. 하지만 한국인을 보호할 목적으로 결국 기독교인들의 만세 시위 가담을 되도록 말리려 했다. 또 한국인의 독립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시정 개선 혹은 한국인의 참정권 보장 정도에 그칠 것으로 생각했다. 선교사들은 본국 정부의 외교정책을 따르면서 한국의 정치 불안정 또는 정치적 중립의 입장을 취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삼았다. 선교사들은 한국인들의 독립에 대한 열망과 일본의 무단통치에 의한 식민지 정책이 사람들을 기독교로 끌어들이고 있다고 보고했다.

선교사들은 31운동에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미쳤다. 미국 북장로교 의료선교사 샤록스(Alfred M. Sharrocks, 謝樂秀)는 윌슨 대통령

를 결의하였다. 언더우드(H. H. Underwood)는 제암리교회 방화살인사건 현장을 찍은 사진과 함께 일제의 만행을 폭로하여 그 사진이 미국 하원 의회록에 게재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선교사들의 활동은 외국인으로서 31운동에 직접 시위자로 참가하지는 않았으나 더 중요한 일을 해주었다. 그것은 31만세 시위운동을 촬영하고 기록하여 일제의 만행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역할을 한 것이다. 당시 조선이라는 나라의 존재가 세계에 제대로 알려지지 아니한 상황에서 비로소 조선이라는 나라의 존재가 국제사회, 특히 미국과 서양사회에 보도된 것이다.

1919년 5월 ‘푸른 눈의 항일운동가’로 불렸던 미국 선교사 윌리엄 린튼(William Alderman Linton, 한국 이름 인돈·1891~1960)의 31운동에 대한 증언을 보도한 미국 애틀랜타의 지역 신문인 <애틀랜타 저널(The Atlanta

Journal)> 기사가 처음으로 최근 공개됐다.

“3월 1일 전국에서 남녀노소를 불문한 인파가 쏟아져 나왔다. 폭력이나 무질서는 없었다. 일본 정부가 이 봉기를 억누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참가자들을 체포하는 것이었다. 감옥은 한국인들로 차고 넘쳤다. 어린이도, 노인도, 양반도, 종도, 그야말로 모든 사람이 있었다. 수천 명의 항일운동가들이 총검에 짓밟혔으나 누구도(폭력적) 저항을 하지 않았다.”

기사 제목은 ‘한국인들이 어떻게 자유를 추구하는지에 대한 한 애틀랜타인의 증언(Atlantian tells how Koreans are seeking liberty)’이었다. 이 신문은 31운동을 ‘세계사(史)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봉기’라고 평가했다. 그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전했다.

“3월 1일, 인구 30만 명의 수도 서울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사람들이 거리로 나서 행진했다. 폭력과 무질서는 커녕, 일본 정부가 군중을 해산하려고 할 때 저항조차 없었다. 그들은 손에 손에 태극기를 들고 있었을 뿐이다. (중략) 잡혀온 한국인들로 감옥에 더 이상 자리가 없자 군부는 기병대대(大隊, battalion)를 보내 수백 명의 한국인들을 말발굽으로 짓밟았다. 하지만 여전히 시위는 계속되고 있다. 일본은 더 강한 군사력을 투입했고, 수천 명의 항일운동가들은 폭력으로 저항하지 않고 총검에 쓰러져갔다.”

린튼은 국제사회의 도움을 간절히 호소했다.

“한국의 운명은 동맹국가에 달려 있다. 파리 평화회의는 3000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한민족의 민족 정체성과 역사, 그리고 문화를 말살해온 일본 정부에 대항하는 한국 국민의 봉기에 응답해야 할 것이다.”

위의 글은 일제강점기 한국 현실과 31운동의 실상을 국제사회에 알려 지지를 호소하기 위해 쓴 글이다. 린튼은 전북 군산의 31운동을 지도하는 등 한국 국권 회복과 교육사업에 헌신했던 인물이다. 21세에 한국으로 건너온 그는 31운동 당시 28세였다. 1940년 일제에 의해 쫓겨났다가 광복 이후인 1946년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 성경학교를 운영하는 등 활발히 활동했다. 우리 정부는 2010년 그에게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린튼이 1956년 세운 한남대학교(구 대전대학)가 최근 교내 아카이브에서 이 기사를 발견했다. 린튼의 손자인 인요한 세브란스병원 국제진료소장은 “할아버지는 일평생 한국을 사랑했던 분”이라며 “이 기사는 한국인들이 자유 독립과 민주주의를 위해 놀라운 방법으로 독립운동을 했다는 증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선교사들의 역할이란 ‘31운동과 일제의 탄압에 대한 실상을 외부에 알려 국제 여론을 조성한 것’과 ‘한국인들의 독립요구의 정당성에 공감하고, 피해자들을 적극 치료하고 위로하고 보호한 것’, ‘일제 시정을 한국의 자유와 권익을 확대하도록 개선하도록 압력을 가한 것’, ‘폭격한 것을 역사적 기록으로 남겨 전수한 것’ 등이다. 선교사들의 한계란 ‘보호가 목적이긴 했지만 만세 시위 가담을 말린 것’, ‘독립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시정 개선이나 한국인의 참정, 자치정도를 이상으로 본 것’, ‘계속적 선교활동을 위해 정교분리 원칙을 내세우며 일제에 적극 항거하지 못한 점’이다. (계속)

함께 걷는 17번째 꽃길

용산복지관 개관 17주년 감사예배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개관 17주년을 축하하며 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지난 3일 온누리복지재단 산하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이하 용산복지관)이 개관 17주년 감사예배를 드렸다. ‘함께 걷는 17번째 꽃길’을 주제로 드린 이번 감사예배에는 용산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 및 지역 주민, 성장현 용산구청장, 김정재 용산구의장, 정호욱 온누리복지재단 상임이사, 이성희 관장(용산복지관),

박종길 목사(서빙고 온누리교회) 등 2백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박종길牧사는 ‘축복의 비결’을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박牧사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축복받고 승리하는 어르신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축복했다. 이성희 관장은 “노인복지를 선도하는 용산복지관이 되도록 더

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내년 이 자리에서 건강하게 다시 만나서 함께 축하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 모두가 건강하기를 바란다”고 축사했다. 정호욱 상임이사는 “용산복지관을 통해서 더욱 행복하고 품위 있는 어르신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인사했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남양주M미션 한국어 교사 모집

5월 12일부터 초급, 중급반, TOPIC반

남양주M미션에서 광릉내(남양주 이주민 집단 거주지) 일대에 거주하고 있는 이주민 근로자들에게 5월 12일부터 매주 주일 오후 2시부터 4시, 혹은 3시부터 5시까지(시간 조정 가능) 한국어(초급, 중급반, TOPIC반)를 가르쳐줄 교사를 모집한다. 장소는 남양주시 진접읍 광릉내로 91

제일빌딩 3층이다.

양옥진 선교사(남양주M미션)는 “한국어 교실을 기반으로 나라별 예배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예수님을 만나고, 고국에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로 변화되도록 돕는 일에 헌신해 달라”고 부탁했다.

문의: 010-3937-3927

평택 온누리교회 성가사 모집

평택 온누리교회 성가사를 모집한다. 대상은 세례교인, 대졸 이상 전공자,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하며 성품이 온유한 성도이다. 경력 1년 이상이나 평택 온누리교회 인근 거주자를 우대한다.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이메일(able7107@onnuri.org)로 보내면 된다.

문의: 031-651-9680

새가족 등록을 축하합니다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교적번호	성명	공동체
1132787	안을현	서빙고	1134601	공현선	SNS	1134640	이승훈	영등포구로	1134671	안성현	인천Web
1134568	박하람	요셉	1134602	박성은	SNS	1134641	백두현	대전 동누리	1134672	조다혜	대전 O2
1134569	황현주	인천 소망	1134603	김지윤	SNS	1134642	류재식	인천 소망	1134673	이소라	무공동체
1134580	차유미	강촌	1134604	김선희	SNS	1134643	윤남경	인천 소망	1134674	권효진B	Bridge33+
1134581	손원수	인천 사랑	1134605	이소영	SNS	1134644	정세원	허브	1134675	김정아	강남A
1134582	김영주	인천 사랑	1134606	정정숙	용산	1134645	이지은	여호수아	1134676	이관태	J1
1134583	송도현	진새굴	1134609	박성희	서초B	1134646	김민주	여호수아	1134677	정창욱	양재
1134584	차은주	진새굴	1134610	정예주	분당A	1134647	배서연	여호수아	1134678	손하늘	성북
1134585	김아림	OEM경아예배	1134611	현혜성	경기A	1134648	강성호	여호수아	1134679	이준인	여호수아
1134587	김화평	동대문중앙	1134612	이남정	송파A	1134649	유준	여호수아	1134680	홍소윤	부천 희락
1134588	고수연	SNS	1134613	지철구	인천 소망	1134650	이인진	여호수아	1134681	곽주연	부천 화평
1134589	신혜진	SNS	1134622	복유정	한강	1134651	우정인	J4U	1134682	권태형	송파A
1134590	유하은	SNS	1134623	권세현	인천Web	1134652	유경은	J4U	1134683	김이현	SNS
1134591	김재현	SNS	1134624	김종엽	송파A	1134653	장재원	J4U	1134684	임지영	SNS
1134592	조유진	SNS	1134625	김희선	강남C	1134654	신동현	J4U	1134685	윤진희	SNS
1134593	이예진	SNS	1134626	윤나현	인천 소망	1134655	김태원	허브	1134686	황동건	SNS
1134594	황보성	SNS	1134628	장준옥	양재	1134656	이나현	허브	1134687	심예린	SNS
1134595	김명신	SNS	1134629	최보배	갈렙	1134657	권영욱	허브	1134688	김영선	SNS
1134596	박승근	SNS	1134633	김학민	인천 소망	1134658	이동우	Bridge33+	1134689	박혜영	SNS
1134597	이양선	SNS	1134634	박은희	수원 남누리	1134662	박주완	인천소망	1134690	문혜영	SNS
1134598	강명은	SNS	1134635	김혜라	인천 소망	1134666	김서연	S브릿지	1134691	노인애	SNS
1134599	박지안	SNS	1134636	오송이	양재	1134669	이현준	허브			
1134600	윤수한	SNS	1134637	박영민	양재	1134670	변예담	하늘			

러브소나타 시즈오카 봉사자 추가 모집

14일까지 A팀(5월 14~17일 일정) 40명

5월 15~16일 막 오르는 ‘러브소나타 시즈오카’ 집회 봉사자를 추가로 모집한다. 다음 주일(14일)까지 서빙고 온누리교회 목회행정실이나 홈페이지(www.lovesonata.org)에서 신청하면 된다. 다른 캠퍼스는 목회지원실에서 신청하면 된다. 인원은 A팀(5월 14일~17일, 3박4일) 40명, 비용은 95만원(항공, 호텔, 현지 체제비 일체)이다.

러브소나타 시즈오카 봉사자들은 현지교회 방문, 선물 패키징, 블레싱, 결신서 회수, 중보기도 등을 한다. 문의: 02-749-1149



시즈오카 기 · 도 · 제 · 목

- 4월 8일(월) 러브소나타를 통해 주님의 크신 사랑을 알게 되기를
- 4월 9일(화) 시즈오카 교계에 성령의 역사와 부흥이 일어나기를
- 4월 10일(수) 러브소나타를 통해 분열된 교회들이 연합하도록
- 4월 11일(목) 한국인 봉사자들을 축복하셔서 주님의 임재 누리도록
- 4월 12일(금) 일본인 봉사자가 잘 모집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 4월 13일(토) 리더십포럼, 교회세미나, 가스펠나이트가 잔치가 되도록
- 4월 14일(주일) 이재훈 목사님에게 충만한 성령의 능력이 임하도록

몰도바 뽀거네쉬티마을 보건소 준공식

NGO 더멋진세상과 두산그룹 협력사업

NGO 더멋진세상이 동구권 빈곤 지역에서 더 멋진 마을을 개척하고 있다. 지난 3월 22일 NGO 더멋진세상과 두산그룹이 함께 ‘몰도바 뽀거네쉬티마을 보건소 준공식’을 개최했다.

몰도바는 구소련으로부터 독립한 나라인데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

지 못하고 있는 유럽 최빈국 중 하나이다. 이날 뽀거네쉬티 마을주민들은 하나같이 “NGO 더멋진세상과 두산그룹이 지어준 보건소 덕분에 건강한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되었다”며 기뻐했다.

NGO 더멋진세상은 뽀거네쉬티 마을 식수사업도 착공했다.

OBC 그리스도인의 결혼 개강

‘OBC 그리스도인의 결혼’ 과정이 4월 9일부터 6월 11일까지 11주 동안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 온누리교회 두란노홀에서 진행된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결혼생활을 배우고 이뤄나가도록 돕는 과정이다. 결혼에 대한 성경의 기본적인 가르침과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기 위한 기술, 친밀한 부부 관계를 위한 성품 훈련 등을 배우고 나눈다. 하나님의 계획, 떠남과 합함, 한 몸을 이룸, 의사소통, 참된 남편 참된 아내, 부부의 성 등을 주제로 정대서 장로가 강의한다. 문의: 010-5249-9024

온누리교회 식자재 납품업체 입찰

온누리선교재단에서 온누리교회에 식자재를 납품할 업체 입찰을 4월 9일 오후 5시까지 실시한다. 품목은 서빙고, 양재, 양지 온누리교회에서 사용할 농산물, 수산물, 육류, 공산품, 소모품이다. 대기업군에서 1개 업체, 중소기업군에서 1~2개 업체를 선정한다. 선정된 업체와는 오는 6월 1일부터 내년 5월 31까지 1년 동안 계약한다.

문의: 010-3927-0705

열린다성경 스터디투어 참가자 모집

테마와 영성이 있는 ‘열린다성경 스터디투어’에서 이스라엘과 터키-그리스 투어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스라엘 투어는 7월 20일부터 26일까지, 터키-그리스 투어는 7월 26일부터 8월 3일까지 진행된다.

열린다성경 스터디투어는 단순한 성지순례가 아니다. 매일 아침 1시간 반씩 주제별 공부를 한 다음 현장을 답사하는 코스이다.

문의: 010-4902-1022

■ 서빙고 헬로맘스쿨 수료 간증



/ 김나신 성도(마포공동체)

결혼 이후 시작된 미국생활은 나에게 큰 도전이었다. 나는 많이 웃었지만 더 많이 울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았지만 혼자 붙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짧은 시간 많은 이사를 다니며 정신없는 생활을 했다. 미국생활 마지막에 갔던 네이퍼빌 온누리교회에서 통독훈련은 큰 은혜의 시간이었다.

우리 가족은 갑자기 한국에 돌아오게 되었다. 한국에 오자마자 온누리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알아보았다. 그렇게 해야 나의 정신을 붙잡을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다. 아이스쿨에서 발견한 ‘서빙고 헬로맘스쿨: 성경인물과 함께하는 브런치타임’을 듣게 되었다. 한국에 와서 이 집, 저 집을 네 식구가 옮겨 다녔다. 갑자기 돌아가신 시아버님의 장례를 치르기도 했다. 기관에 보낸 적 없는 아이들을 처음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보냈다. 말할 수 없는 여러 폭풍 같은 일들이 있는 동안 서빙고 헬로맘스쿨은 나에게 한줄기 빛 같았다.

성경 속 여성인물들을 배우며 나의 잘못되고 세상적인 시선을 거두고 회개하였다. 하나님이 세우신 여성이 되기 위한 과정과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존귀한 시간이었다. 내가 그때

내 평생의 은인

서빙고 헬로맘스쿨을 듣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 가정은 이 자리에 따뜻한 형태로 있지 못했을 것이다. 6번의 짧은 강의였지만 그 시간은 너무나 소중하고 귀했다. 강미향 목사님의 잘진 설교는 나의 심금을 울렸고, 조원들과의 나눔은 나의 마음을 위로하였다.

나는 유치원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자세히 배울 수 있던 기회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하나님의 여성으로, 엄마와 아내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생각해야 하는지를 깨달았다. 정말 나에게 감사한 강의였고 여성이라면 누구나 들어야 할 강의라고 생각한다.

이 시대 여성들은 힘들다. 일하면서 육아도 해야 하고, 이것저것 할 일이 많다. 바쁜 일상 속에서 쉽게 세상의 가치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하나님의 시선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지 못하게 된다. 서빙고 헬로맘스쿨에서는 브런치를 먹으며 여성들이 이 땅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다. 그래서 서빙고 헬로맘스쿨은 내 평생의 은인이다.

일정: 4월 19일~5월 24일 매주 금

문의: 010-8952-1337

■ 남양주M미션 스태프 간증



/ 남종욱 팀장(남양주M미션)

5년전 남양주M미션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섬기는 집사님이 팀원이 부족해서 힘들게 사역하시는 모습을 봤다. 남양주M미션은 토요일 오후부터 차량을 이용해서 외국인 형제자매들을 예배에 데려오고 끝나면 데려다 주는 사역을 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들과의 식탁교제를 위해 음식도 준비해야 한다. 사랑의 손길이 많이 필요하고 쉽지 않은 사역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남양주M미션 예배를 자신들의 친목 도모를 위한 일주일에 한 번 있는 모임 정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이용하기도 한다. 예배시간에 핸드폰 사용, 졸음, 자라이탈 등으로 분위기를 흐트러 놓기도 한다. 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역을 적당히 섬기다가 떠나고 싶다고 결론 내렸다.

우연한 기회에 선교와 관련된 책을 보며 외국인 근로자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팀장으로 헌신하게 됐다. 남양주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의 중보기도와 저녁식사, 차량 픽업 등 봉사자들의 사랑의 손길에 외국인근로자들도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며 섬김의 자리로 나와 함께하고 있다.

남양주M미션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사

한 가지 소망

랑을 흘려 보내는 통로로 ‘웹시바의료사역팀’도 있다. 성동광진공동체 집사님이 안수집사 동기 몇 분과 함께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주고 계신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던 외국인 근로자들이 웹시바의료사역팀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환한 미소를 되찾고 있다.

남양주M미션에는 한 가지 소망이 있다. 외국인 근로자들의 밀집 거주지역인 광릉내에 남양주M센터가 세워지는 것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오기 힘든 지역에서는 사역의 한계가 있다. 사역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광릉내에 남양주M센터가 세워지는 것이 시급하다. 감사하게도 한 집사님과 권사님의 섬김으로 광릉내에 작은 규모의 건물 하나를 임대하여 3월 17일 광릉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위한 첫 무료의료봉사를 진행했다. 10개국에서 온 외국인 50~60명이 진료를 받고 만족하며 돌아갔다.

남양주M센터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느낄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크고 놀라운 새 일을 이 땅에서 열여 가실 것이다. 남양주M미션을 위해서 많은 기도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온누리 예배학교 수료 간증



/ 방경애 성도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지난해 말 나는 삶의 균형이 깨지고 예배의 기쁨이 조금씩 식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예배학교를 신청했다. 나의 이런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는 첫 강의부터 큰 은혜를 주셨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배를 깔고 엎드려 개가 주인을 핥듯이 모든 것이 주인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샤하(shachah)의 예배’를 드렸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예배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 들일 수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샤하의 예배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 나도 샤하의 예배를 드렸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닮고 싶었다. 바로 그런 예배를 드리는 원동력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동안 ‘신령과 진정’이라는 뜻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다. 그 뜻을 깊이 알려고 하지도 않았던 것 같다. 여전히 영과 진리의 본질을 모르고 형식과 공간에 한정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나를 돌아보게 되었다.

예배학교를 통해서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

닫게 되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알게 됐다. 예배는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것이며, 모든 순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죄에 대한 명확한 이해도 생겼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얼마나 멀어지게 하는지도 묵상할 수 있었다.

세례와 성찬에 대한 강의를 들을 때는 의식에 풍성하게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됐다. 세례는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이다. 또한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주님과 하나 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매월 교회에서 진행되는 성찬식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떡을 떼시고 포도주를 주셨던 것처럼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을 의미하며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다.

예배학교를 통해서 내 삶을 점검하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됐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로 세워지기를 소망한다.

■ 광명공동체 1다락방 1사역 간증



/ 박상수 집사(광명공동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

광명공동체는 1다락방 1사역으로 분기마다 ‘광명 사랑의 집(장애인 복지시설)’을 방문하고 있다. 그곳에서 찬양, 게임, 친교, 식사, 청소 등의 봉사활동을 한다.

나는 2017년 처음으로 광명 사랑의 집을 방문했다. 처음 참여했을 때만해도 장애인들에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몰라서 그들과 교제하는 것이 망설여졌다. 하지만 공동체 사역팀장이 되면서 내 마음의 자세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전보다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다가갔다.

광명 사랑의 집을 방문하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낯설지 않았다. 즐거운 마음으로 교제했고, 그들의 티 없이 맑고 순수한 모습을 발견했다. 그들은 사람들을 선입견 없이 대한다. 자신들을 찾아와주는 이들을 열렬하게 환영해준다. 우리가 방문할 때마다 마당까지 나와서 기쁘게 맞아주곤 한다. 찬양할 때에도 무대 앞으로 나와서 춤을 추면서 맑은 소리를 지른다.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는 잠시 시간을 내서 그곳을 방문해서 그들의 눈을 마주치고, 손을 맞

잡고 인사하는 것뿐인데 그들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보이며 기뻐한다.

나는 사랑의 집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이번에는 어떤 음식을 준비해야 할지, 어떤 게임이 좋을지를 고민한다. 담당목사님과 사회복지사 선생님께 연락해서 정보를 얻으면서 봉사활동을 준비한다.

3월에는 게임을 하면서 그 친구들과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소그룹 시간에 장애인들이 “여기를 수술했다. 기도해 달라”, “엄마가 찾아오시기로 했다” 등 속이야기를 털어 놓으며 기도를 부탁했다. 우리는 손을 모아 그들을 위해 기도했고, 그들은 “기도해줘서 고맙다”며 사탕 한 개를 건넸다. 그들의 따뜻한 마음이 나를 되돌아보게 했다.

다음 방문일인 6월에는 보다 좋은 프로그램과 깊은 교제로 그 친구들과 함께 하고 싶다. 공동체의 작은 수고를 큰 기쁨으로 받아주고 마음을 나눠주는 광명 사랑의 집 친구들에게 감사하다. 함께 협력하여 섬기는 광명공동체 식구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장로칼럼

꿈을 이어가는 동행팀

이화영 장로
(분당A공동체)

“작은 눈송이 부딪치는 소리에도 겨울은 돌아다보듯이 작은 꽃망울 터뜨리는 소리에도 봄은 귀 기울이듯이...”

하나님은 인생의 추운 겨울을 지내고 있는 사람들 모두를 품에 안아주신다. 요

즘은 봄이 왔다. 이끌어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일어서는 계절이다.

“봄이 오면 Acts29비전빌리지의 경치가 환상적입니다. 작년에 선교사 훈련생들과 틈틈이 꽃나뭇을 더 많이 심었습니다.”

온누리교회 천 번째 파송 선교사 함선호 장로가 Acts29비전빌리지를 자랑했다. 그의 Acts29비전빌리지 사랑은 봄비가 온 뒤 빛나는 아침햇살 같다. Acts29비전빌리지에는 눈 호강 외에도 하용조 목사님을 만날 수 있는 즐거움이 있다. 하용조 목사 기념도서관, 기념관, 기념채플, 묘소 등이 있기 때문이다.

뜻이 맞는 장로 12명이 ‘꿈을 이어가는 동행사역팀’을 만들었다. 하용조 목사님을 추억하러 Acts29비전빌리지를 방문하는 성도들에게 장소적 의미와 선교적 의미 등을 설명하고 안내하는 자원봉사팀이다. 누구든지 이곳을 방문하면 하용조 목사님을 통해서 온누리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과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

하용조 목사 기념관은 단순히 과거를 추억하기 위한 공간적 개념이 아니다. 하용조 목사님의 살아있는 목회철학과 선교 비전을 계승 발전시켜 후대에 남겨주는 온누리교회의 영적심장 같은 곳이다. 우리의 목표는 방문

객들에게 하용조 목사님이 품었던 선교의 꿈이 이어지도록 돕는 것이다.

하용조 목사님과 개인적인 에피소드를 갖고 있는 분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더 이상 과거 속에서 하용조 목사님을 만나지 않아야 한다. 우리 삶에 심어놓으시고, 녹아 있는 목사님의 삶과 가르침을 잘 실천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많은 성도님들이 Acts29비전빌리지를 방문하면 좋겠다. 개인, 공동체, 다락방, 순식구들과 함께 방문해보면 어떨까?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기도하고, 하용조 목사님의 영성과 비전을 묵상하면서 힘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다. 무엇보다 이곳에는 하용조 목사님을 추억할 장소가 참 많다. 도서관에서는 조용히 책을 보거나 노트북을 사용할 수 있고, 기념관에서는 영상이 상영되고 있다. 그 영상을 보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헌신했던 하용조 목사님을 추억할 수 있다. 기념채플에서는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할 수 있다.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세상의 분주함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해보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하용조 목사님 묘소에 앉아있으면 하 목사님의 꿈이 우리 가슴으로 전해지는 것 같다.

우리는 부는 바람을 볼 수는 없다. 그러나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보며 바람을 알 수 있다. 하용조 목사님의 영성이 깃든 Acts29비전빌리지에 가면 꿈을 이어가는 동행팀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꿈을 이어가는 동행팀 자원봉사

일시: 월~금, 오전 10시~오후 4시

내용: 하용조 목사 기념관, 도서관, 채플, 묘소 안내

문의: 031-331-8100

권사칼럼

탈북민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황유정 권사
(성동광진공동체)

누구에게나 새로운 곳에서 적응하는 일은 쉽지 않다. 50대 탈북민 옥희 자매와 영희 자매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새내기 대한민국 국민이다. 두 자매는 인천공항으로 입국해서 서너 달 동안 조사를 마치고 정착교육을 받았다.

그들은 중국의 오지에서 십여 년 동안 살다가 여러 지역을 거쳐 겨우 한국 땅을 밟았다.

하나원사역팀 도시문화탐방사역에 두 자매가 참석했다. 함께 서울 시내를 다니며 ‘지하철 이용하기’, ‘시장과 상점 구경하기’ 등을 했다. 그날은 두 자매가 처음으로 서울 시내를 자유롭게 걸어보는 날이었다. 두 자매에게 “어디 가보고 싶으신가요?”라고 물었더니 “명동이요”라고 대답했다. 하나원사역팀은 두 자매에게 명동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하철을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를 설명했다. 지하철을 타기 전 나는 지폐로 교통카드를 충전하는 방법을 알려줬다. 지하철 탈 때 카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직접 보여주면서 해보도록 했다. 출구에서 또 다시 교통카드를 찍어야 한다는 것도 알려줬다. 명동역에 도착해서는 몇 번 출구로 나가야 하는지를 입구에 붙어 있는 지도를 보면서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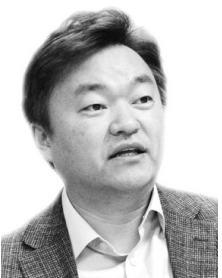
시간이 흐르자 두 자매의 긴장이 풀렸는지 출발할 때 어둡고 상기된 모습이 온데간데없고 환하고 밝은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새로운 것에 대한 관심이 가득 차 있었다. 특히 지하철 광고와 시설에 관심을 보였다.

나는 두 자매와 지하철을 함께 이용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나 중국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북한에 가족이 있는지는 물어보지 않았다. 과거의 기억들이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신 내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다. 그랬더니 조금씩 본인들의 이야기를 꺼냈다. 한 자매는 중국에 열아홉 살 아들이 있는데 한국으로 데려오고 싶다고 했다.

탈북민들에게 대한민국은 새로운 삶의 터전이다. 하지만 문화차이로 인해 겪는 어려움이 많다. 한국의 생활방식이 탈북민들에게는 매우 낯설다. 일자리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불안과 염려도 그들을 괴롭힌다. 대부분의 탈북자들은 “북한에 두고 온 가족은 어떻게 되었을까?”, “낮선 남쪽에서 잘 살 수 있을까?”, “무슨 일을 해야 할까?” 등 걱정이 끝이 없다. 옥희 자매는 중국에서 공안들에게 잡힐까봐 18년을 노심조사하며 살아서 아직도 밤에 잠을 설친다고 했다. 한국에는 중국 공안이 없고 이제야 잘 정착했는데도 아직도 나에게 두렵다는 전화를 한다.

한국에 3만 명이 넘는 탈북민들이 있는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탈북민들에 대해 관심이 없거나 배척하는 경우가 있다. 탈북민 형제자매들이 신앙공동체 안에서 예배하며 삶을 나눌 수 있도록 돕는 일이 필요하다. 하나원사역팀은 그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탈북민들이 하나원 수료 이후에도 신앙을 잃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다. 하나원 교육기간에는 예배에 많은 탈북민들이 참여한다. 하지만 수료 이후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서는 대부분 신앙생활을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탈북민들을 향한 우리의 관심과 사랑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신앙에세이

오민 목사
(강남A공동체)

2015년 가을 온 가족이 하와이 열방대학에서 DTS(Discipline Training School) 훈련을 받았다. 그 시간은 축복 그 자체였다. 특히 목요일 저녁마다 드리는 전례예배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뜨겁게 경험하는 시간이

었다.

전례예배에서 인도 선교사 베니 프레스드(Benny Prasad)의 간증이 가장 인상 깊었다. 그 이유는 나의 신앙을 새롭게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의 간증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천하라’는 것이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실천하는 그의 삶은 그 어떤 말보다 강한

힘이 있었다. 마태복음 7장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잘 나와 있다.

“그러므로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은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세차게 내리쳐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았다. 바위 위에 기초를 세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하는 말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마 7:24-27).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 한쪽은 믿음이 있고, 다른 한쪽은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둘 다 똑같이 주님께 나아가고(come),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listen). 그러나 한쪽은 말씀을 실천하고 한쪽은 실천하지 않았다.

마태복음 7장은 내가 어렸을 적부터 많이 들었던 말씀이다.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는 당

연히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으로 생각했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정직하게 나의 모습을 살펴보면 얼마나 많은 경우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않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예배 중에 마음에 감동이 있거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이라고 말하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에 불과했다. 말씀의 큰 깨달음이 있을 때면 마치 내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곤 했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불편한 진실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만 멈춘다면 열심히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무너지고 만다. 말씀을 듣기만 한다면 삶의 비바람을 만나면 맥없이 무너지게 된다. 하나님을 아는 것 같고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삶의 문제 앞에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크게 다를 바 없게 된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행

해야 비로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신다. NIV성경은 “말씀을 연습하라(put them into practice)”고 기록하고 있다.

새로운 운동이나 악기를 배울 때 여러 번 연습해야만 비로소 내 것이 되는 것을 종종 경험한다. 연습이기에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수 없고, 실수할 수 있다. 하지만 연습을 하면 할수록 익숙해지고 나중에는 즐기게 된다. 마찬가지로 주님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연습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말씀을 가지고 연습하는 것이 처음에는 어색하고 익숙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계속 말씀을 연습하게 되면 비로소 말씀이 내 삶이 되고, 하나님을 더욱 경험하는 자리로 가게 될 것이다. 이 깨달음을 얻은 지 몇 년이 흐른 요즘, 말씀 연습하기를 미루고 있는 나의 모습을 보며 다시 한 번 인생의 비바람에도 흔들림 없는 튼튼한 집을 짓기를 다짐해본다.

말씀 연습하기



주일강단

〈3면에 이어〉

다윗의 기도

다윗은 이 계시를 받고 기도합니다. 이 계시가 임했을 때 감격을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된 것에 감동해서 하나님 앞에 오래 머문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왕이 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전율을 느끼며 감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중 일부를 읽어보겠습니다.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

“주 하나님이지요, 그러니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해 약속하신 말씀이 영원히 변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영원히 높이며 ‘만군의 여호와와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지요’라고 말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세워지게 해 주십시오. 만군의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며, 주께서 이것을 주의 종에게 드러내며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세우리라’ 하고 말씀하셨으니 주의 종이 용기를 내어 이런 기도를 올려 드립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말씀은 진실하고 주께서 주의 종에게 이런 좋은 것으로 약속하셨으니 주의 종의 집에 기꺼이 복을 주셔서 그것이 주 앞에서 영원히 지속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주의 종의 집이 주께서 내리시는 복으로 영원히 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25-29절).

‘영원’이라는 단어가 네 번 나옵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보좌를 영원히 세워 줄 것이다”라고 딱 한 번 말씀하셨는데 다윗은 그 계시를 받고 영원이라는 단어를 붙잡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주어

졌을 때 그것을 가슴에 품고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드러지는 기도가 진짜 기도가 됩니다. 우리는 본성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고, 위기일 때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의 말씀이 주어질 때 기도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고, 올바른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임했을 때 다윗은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세우리라” 하고 말씀하셨으니 주의 종이 용기를 내어 이런 기도를 올려 드립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용기를 얻어 기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을 보면 다니엘이 금식기도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금식기도를 할 수 있게 한 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받은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메대 사람인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왕이 돼 바벨론을 다스린 첫해였습니다. 곧 그가 다스린 지 1년 되던 해에 나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을 보고 여호와께서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연수를 정해 말씀하셨음을 알았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이 무너진 지 70년 만에 돌이키시겠다고 하셨습니다”(단 9:1-2절).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과 계시를 받은 것을 메모하고 기록한 서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옮겨 적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니엘이 우연히 발견한 것입니다. 거기 보니까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다니엘은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운 약속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는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다윗은 기도 후반부에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에 담겨있는 한 단어를 붙잡습니다.

‘영원’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세상에서 다윗의 왕조가 잘 되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쓴 단어가 아닙니다. 실제 영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영원은 실제적인 영원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을 주신 분이 영원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영원히 계십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역사의 시작자요, 심판자가 되시며,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다윗은 영원한 시각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집을 통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나라이고, 영원히 복된 나라이며, 영원히 축복된 나라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영원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요, 순례자입니다. 이 땅에서 수많은 일을 겪게 되고, 이 세상은 더 절망적이 될 것이며, 전쟁과 기근은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종말의 예언대로 세상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소멸될 것입니다. 우리의 희망과 안전은 바로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이유는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살다가 가도록 창조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도록 창조되었고, 이 땅에서 우리는 잠시 나그네로 살아가는 존재인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기도가 너무 중요합니다. 영원을 바라보는 기도, 미래의 은혜를 사모하는 기도가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각이 영원의 시각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가졌던 감사, 경배, 그리고 고백과 간구가 우리의 기도 속에도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기교



곽상학 목사
(온누리교회 협동 목사, 새물중학교 교사)

“어두운 방 안엔 빠알간 숯불이 피고 외로이 늙으신 할머니가 애처로이 잣아드는 어린 목숨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이윽고 눈 속을 아버지가 약을 가지고 돌아오셨습니다. 아, 아버지가 눈을 헤치고 파으신 그 붉은 산수유 열매... 서러운 서른 살 나의 이마에 불현듯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을 느끼는 것은 눈 속에 파으신 산수유 붉은 알알이 아직도 내 혈액 속에 녹아 흐르는 까닭일까”(김종길 시 ‘성탄제’).

가난한 아버지가 병든 자식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겨우 붉은 산수유 열매 따다 주는 것밖에 없는 현실을 아련한 추억으로 처리한 따뜻한 시다. 이 시에는 그리스도의 희생적 삶과 작가가 체험한 유년 시절의 부성애가 비슷한 무게의 등가물로 형상화되어 있다. 펄펄 끓는 아이의 이마와 아버지의 서늘한 옷자락은 절묘한 촉각적 대비를 이루면서 자식을 위해 추운 날 밖에서 고생하는 아버지를 잘 그려냈다. 대부분 우리네 아버지들도 식솔들의 안위와

행복을 위해서 기꺼이 밖으로 열심히 뛰어다니며 서늘한 옷자락을 자초한다.

나는 어릴 적 아빠의 당당한 뒷모습을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나의 영웅’을 굳이 TV나 만화에서 찾을 필요가 없었다. 이것은 나만의 이야기가 아닐 것이다. 이 세상 모든 아버지들은 아들들의 생애 최초의 우상이다. 초등학교 5학년 때로 기억한다. 장남에게 거는 기대가 유난히 크셨던 아버지는 학교 시험 결과에 유독 민감했다. 아버지는 “한 문제 틀릴 때마다 종아리 열 대”라고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하셨다. 나는 시험에서 열 한 문제를 틀렸다. 아버지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무 빗자루 손잡이로 무려 110대를 때리셨다. 그날 밤 나는 아픔과 억울함으로 잠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눈물범벅이 되어 가까스로 잠이 들던 그 순간 매질을 당해 터져버린 종아리에 갑자기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다. 직감적으로 아버지의 손길임을 알아챘지만 눈을 뜰 수가 없었다. 아침에 눈을 떠보니 방구석 한 쪽에서 발견된 동그란 연두색 연고 안티푸라민이 나만의 붉은 산수유 열매이다.

할머니로부터 아버지의 외도(外道) 사실을 들었던 중학생 시절, 나의 영웅 신화는 산산조각 나버리고 말았다. 믿고 의지했던 만큼 아버지

할머니는 매일 거친 욕을 한바가지 쏟아내셨고, 어머니는 가족을 건사하느라 밤늦게까지 통닭을 튀겨야 했다. 그날진 얼굴의 여동생은 급격히 말수가 사라지면서 세상과 담을 쌓기 시작했다. 더 이상 나의 영웅도, 내 아버지도 아니었다. 그저 내 손에 처단되어야 할 적(敵)에 불과했다. 한 가정의 가장을 유혹한 그 여자도, 그 사이에서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그 아이도 모두 내 복수리스트에 올라 있었다. 그 모두에게 처절한 복수를 다짐하며 내게 힘이 더 생겼을 것이다. 나의 청소년기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시절이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요 1:9).

늘 복수와 죽음을 되뇌며 어둠에 갇혀있던 그 시기, 나는 빛으로 다가오신 한 분께 온전히 점령당했다. 빛 되신 그분이 내 인생에 뚫고 들어오신 것이다. 빛이 비추이자 내 인생을 잠식했던 캄캄한 어둠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삶의 소망은 느리지만 분명 내게 다가왔다. 따뜻한 믿음의 공동체가 기울어진 가정을 지탱해 주었고, 서툴지만 사랑이라는 단어도 조금씩 알아갈 수 있었던 것은 빛 되신 그분의 포기하지 않는 열심이었다.

그분은 한 곳을 바라보며 평생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한 여인을 아내로 보내주셨고, 그

사이에서 네 아이를 허락하셨다. 자연분만으로 얻은 첫 딸과 가슴분만으로 얻은 세 아들. 생모가 심대 미혼모였던 장남 은택이는 태교는커녕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간신히 살아남은 기적의 아들이다. 차남 은찬이, 삼남 은준이도 각자 처절한 사연을 하나씩 갖고 태어난 기적의 아들들이다. 태어나자마자 친부로부터 분리된 불쌍한 아이들. 그런데 나는 어떠한가. 한때 제 아비를 증오하던 아이가 아니던가. 매일같이 가슴에 분노를 품고 인생을 저주했던 그 아이가 지금은 그 가슴으로 세 아이들을 품고 있다. 매일같이 복수를 뇌까렸던 그 입술로 지금은 아이들과 즐거운 동요를 부르고 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철학 같은 내 인생에 비늘구멍 같은 빛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 옛날 갈보리 언덕까지 나무 형틀을 메고 올라간 한 유대인의 서늘한 옷자락. 그 옷자락을 만져가며 함께 따라 가는 수많은 군중들 사이로 스쳐 지나가는 내 얼굴 빛이신 그분은 그런 나를 위해 결국 그 나무 형틀에 매달리셨다.

가지마다 줄줄이 매달려 있는 산수유 붉은 열매와 그 사이로 올려다보는 파란 하늘은 눈이 시리게 맑다. 눈을 감고 아이들과 산수유 열매를 엄지와 검지로 살살 간질이는 놀이가 소중한 까닭은 나의 두 아버지를 추억하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기 때문이다.

서빙고

02.793.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6:50 분당
2부 오전 9:00 분당
3부 오전 11:30 분당
4부 오후 1:50 분당
5부 (십자가의 길) 오후 4시 비전을
6부 (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시 분당
7부 9시에 뜨는 별 오후 9시 분당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분당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분당

월요 어노인팅집회
매주 월요일 오후 7:00 비전을

화요Holy Impact 집회
매주 화요일 오후 7:3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분당

수요목양예배
매주 수요일 오후 7:30 분당

목요경배와찬양
매주 목요일 오후 6:30 분당

목요선교집회
매주 목요일 오후 7:30 비전을

금요회복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7:20 분당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요일 오후 9:50 분당

한마음정신회복예배
담당: 최용준 목사
매 주일 오전 11:20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532

S브릿지 예배
내용: 만33~44세 미혼 청년예배
주일 오후 1:30 두란노홀
문의: 신상국 대표(010-7933-5422)

장애인 공동체 누리사랑부예배
매 주일 오전 11: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중수 팀장(010-7303-1603)

야베스맘예배(사별자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6:00~8:30 선교관 403호
문의: 정종희 팀장(010-9391-7997)

문화 미디어 중보기도예배
매주 화요일 오후 8:00~9:30 콘서트를
문의: 전도본부(02-3215-3214)

사랑부예배
대상: 발달장애청소년
시간: 매주일 오전 9:00 선교관 콘서트를
문의: 김중영 목사(010-2890-1707)

예수사랑부예배(발달장애 청장년공동체)
매 주일 오전 11:20 서빙고 한동을
문의: 김진현 팀장(010-8567-1808)

일본어예배
매 주일 오후 2:00 선교관 한동을
문의: 김상호 팀장(010-9349-5631)

일본어예배 수요기도회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선교관 302호

영어예배

매 주일 오후 4:00 경찬홀
문의: 02-3215-3685

중국어예배

매 주일 13:30 경찬홀
문의: 김성철 집사(010-3660-7135)

온누리M미션 외국어예배

서빙고(02-3215-3730)

몽골어 주일 14:30 선교관 401호
러시아어 주일 14:00 선교관 301호
네पाल어 주일 14:30 선교관 402호/매월 첫주 군포 하나로 센터
아랍어 주일 14:00 본관 B102/매월 첫주 선교관 402호
페르시아어 주일 14:30 선교관 208호

안산M센터(031-491-9650)

몽골어 주일 10:30 Joy 201 / 러시아어 주일 10:00 Onnuri Hall / 네팔어 주일 10:30 Peace 303 / 캄보디아어 주일 10:30 Peace 302 / 미얀마어 주일 10:30 Joy 202 / 필리핀, 타갈로그어 주일 10:30 Peace 301 / 태국어 주일 14:00 Peace 303 / 스리랑카어 주일 11:30 Peace 304 / 베트남어 주일 예배 14:00 Peace 301 / 중국어 청년 주일 14:00 Peace 304
다문화 꿈향주일 11:00 Star tree / 다문화 파워웨이브 주일 11:00 2F Library / 다문화 예교 주일 10:30 B105 / 다문화 대형 주일 14:00 4층 Manna hall / 인도네시아어 주일 14:00 Peace 305 / 우즈베크스탄어 주일 14:00 1F StarTree / 파키스탄어 주일 13:00 Peace 305 / 열방예배 9:00, 11:00 4F Manna hall

김포M센터(010-7762-7718) 캄보

디아어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3호 / 차세대 주일 11:00 양곡 프라자 빌딩 705호

화성M센터(070-8671-8091) 열방

예배 주일 9:30 301호/네팔어 주일 10:30 302호

평택M센터(031-651-1702) 몽골어

주일 11:30 평화 Love Hall

DRS 이혼자 정기예배

일시: 매주 토 15:30~19:00 신관401호
문의: 김재영 집사(010-2539-5665)

나지원 팀장(010-3489-2080)

이스라엘 중보기도 모임

서빙고: 매주 토 오전 7:30 시온홀
양재: 매주 토 오전 8:00 JDS홀

문의: 02-792-7075

대학청년부를 위한 어머니 기도모임

매주 금요일 10:00~12:30 본관 B102호
문의: 추명희 집사(010-8000-4792)

군 선교와 군인대 자녀를 위한 기도모임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7:30
장소: 서빙고 선교관 101호
문의: 02-3215-3214

마리아행전 중보기도모임

나라와 민족위해 기도하는 기도부흥운동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신관 3층 드림홀

문의: 여성사역(02-3215-3227)

북한중보기도모임 안내

일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9시
장소: 선교관 403호
문의: 송용주 형제(010-8591-8236)

병원사역예배/환우기도모임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장소: 서빙고 신관 301호

대상: 봉사자 및 환우 중보 요청자
문의: 이재신 팀장(010-4753-3150)

Acts29비전빌리지 열방예배

매주 월~금 오전 11시30분~12시 30분
서튼은행(031-331-8182)

서빙고출발 09:30, 양재출발 10:00

비전빌리지(양지)출발 15:00

한터 공동체 예배

탈북민사역에 관심있는 분들을 위한 예배
시간: 매주 오전 10시
장소: 한누리 본부(지하철 9호선 가양역 6번출구, 투썸플레이스 건물 6층)

TIM MK 중보기도 모임

시간: 매월 둘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
장소: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302호
문의: 김명지 간사(010-5017-3146)

아프가니스탄 중보 기도모임

시간: 매주 목요일 오전 10:30 ~ 12:30
장소: 선교관 1층 미션홀
문의: 이신숙 집사 010-3212-2664

일.하.세. GUM예배

시간: 매주 토요일 8시 30분
장소: 서빙고 캠퍼스 선교관 101호

차세대 목요어머니기도회

개강: 3월 21일(목) 오전 10:30
장소: 신관 4층 누리홀

문의: 신관 4층 누리홀

문의: 신관 4층 누리홀

문의: 신관 4층 누리홀

문의: 신관 4층 누리홀

문의: 신관 4층 누리홀

문의: 신관 4층 누리홀

문의: 신관 4층 누리홀

문의: 신관 4층 누리홀

문의: 신관 4층 누리홀

문의: 신관 4층 누리홀

문의: 신관 4층 누리홀

문의: 신관 4층 누리홀

문의: 신관 4층 누리홀

문의: 신관 4층 누리홀

문의: 신관 4층 누리홀

문의: 신관 4층 누리홀

문의: 신관 4층 누리홀

문의: 신관 4층 누리홀

문의: 신관 4층 누리홀

문의: 신관 4층 누리홀

문의: 신관 4층 누리홀

문의: 신관 4층 누리홀

문의: 신관 4층 누리홀

문의: 신관 4층 누리홀

문의: 신관 4층 누리홀

문의: 신관 4층 누리홀

문의: 신관 4층 누리홀

문의: 신관 4층 누리홀

문의: 신관 4층 누리홀

문의: 신관 4층 누리홀

문의: 신관 4층 누리홀

문의: 신관 4층 누리홀

문의: 신관 4층 누리홀

문의: 신관 4층 누리홀

문의: 신관 4층 누리홀

문의: 신관 4층 누리홀

문의: 신관 4층 누리홀

문의: 신관 4층 누리홀

문의: 신관 4층 누리홀

문의: 신관 4층 누리홀

문의: 신관 4층 누리홀

문의: 신관 4층 누리홀

문의: 신관 4층 누리홀

문의: 신관 4층 누리홀

문의: 신관 4층 누리홀

문의: 신관 4층 누리홀

문의: 신관 4층 누리홀

문의: 신관 4층 누리홀

문의: 신관 4층 누리홀

문의: 신관 4층 누리홀

문의: 신관 4층 누리홀

문의: 신관 4층 누리홀

문의: 신관 4층 누리홀

문의: 신관 4층 누리홀

문의: 신관 4층 누리홀

문의: 신관 4층 누리홀

문의: 신관 4층 누리홀

문의: 신관 4층 누리홀

문의: 신관 4층 누리홀

문의: 신관 4층 누리홀

문의: 신관 4층 누리홀

문의: 신관 4층 누리홀

문의: 신관 4층 누리홀

문의: 신관 4층 누리홀

문의: 신관 4층 누리홀

문의: 신관 4층 누리홀

문의: 신관 4층 누리홀

문의: 신관 4층 누리홀

문의: 신관 4층 누리홀

문의: 신관 4층 누리홀

문의: 신관 4층 누리홀

문의: 신관 4층 누리홀

문의: 신관 4층 누리홀

문의: 신관 4층 누리홀

문의: 신관 4층 누리홀

문의: 신관 4층 누리홀

문의: 신관 4층 누리홀

양재

02.573.9686

주일예배(사랑홀)
1부 오전 6:50 2부 오전 9:00
3부(열린예배) 11:30 4부 오후 1:50
5부(대학청년부 여호수아) 오후 4:00
6부(열린새신자예배) 오후 7:00
7부 9시에 뜨는별 오후 9:00

1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5:20 사랑홀

2부 새벽기도회
매주 월~토 오전 6:30 기쁨홀

새신자를 위한 열린예배
주일 오후 7:00 사랑홀

화요성령집회
매주 화 오후 7:30 기쁨홀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사랑홀

수요예배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 사랑홀

금요철야예배
매주 금 오후 11:00 사랑홀

브릿지33+ 예배
33세~44세 싱글 남녀를 위한 공동체
매주 주일 오후 2:50, 하용조 기쁨홀
문의: 이수준 팀장(010-6398-6022)

한마음 정신 회복 예배 안내
매주 주일 오전 11:30 트리니티 강의동 304호

Point5 예배
주일 오전 11:30 하용조 기쁨홀

차세대예배(Point5 영어와 한국어로 드리는 예배)
Jesus Toddler 24~48개월(주기철재폴실)
Jesus Rock 5세~초등1(총성홀 9:00)
Jesus Crew 초등2~초등6(JDS홀 9:00)
Jesus Vine 초등1~중등3(비전홀A 9:00)

도곡교육관 주일 성인예배
도곡1관 사랑홀(숙명여고 대강당)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30분

도곡 차세대 9:00 예배
영아부: 도곡1관 꿈터(B동 1층)
유치부: 도곡1관 꿈이홀(B동 1층)
유년부: 도곡1관 총성홀(B동 2층)
초등부: 도곡1관 화평홀(B동 2층)
중등부: 도곡1관 온유홀(A동 2층)
고등부: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 차세대 11:30 예배
예교: 도곡1관 꿈터(B동 1층)
꿈땅: 도곡1관 총성홀(B동 2층)

도곡교육관 주일 11:00 예배(영어)
Adult Service: 도곡2관(중대부고 강당)

도곡교육관 11:00 영어 차세대예배
Hope Zone(Newborn~Age4)
: 도곡2관(중대부고 5층)
Love Zone(Age5~Grades2)
: 도곡2관(중대부고 5층)

Joy Zone(Grades3~6)
: 도곡2관 (중대부고 5층)
OEM Youth(Grade7~12)
: 도곡1관 기쁨홀(A동 3층)

도곡교육관 주일 오후 2:00 예배(청년부)
갈렘 청년부 예배: 도곡2관(중대부고5층)

사랑부 예배(장애 학생)
주일 오전 9:00 비전홀B
문의: 이루주 전도사(010-9150-5190)

프랑스어 예배
설교: Gerard Tynevez
일시: 주일 오후 2:00 양재 강의동 304호
문의: 010-5467-9878, *통역 지원

스페인어예배
설교: Cristian Neira
일시: 주일 오후 2:00도곡교육관 온유홀
문의: 010-4924-2703

하나공동체 예배
탈북민과 탈북민 사역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한 공동체
매주일 14:00 양재 JDS홀

마리아행전 주중기도모임
대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모든 여성
일시: 매주 수요일 13시~14시 30분
장소: 양재 화평홀
문의: 02-570-7277

병원사역예배와 기도모임
장소: 양재 비전홀A
시간: 매주 수요일 오후 1:00~2:30
문의: 조현영 팀장(010-3328-6366)
*환우중보 심방, 전도(사랑홀 환우 요청함)

양재 살롬기도회
대상: 나라와 하나 됨과 평화를 위해 기도하기 원하는 성도
매주 월 오후 7시 30분 양재 JDS홀
문의: 송세호 팀장(010-8634-9030)

대청어머니기도모임
일시: 매주 화 10~12시 반 경찬홀
문의: 김은지(010-3285-1726)

차세대 목요어머니기도회
개강: 3월 21일(목) 오전 10:30
장소: 본관 B3층 JDS홀

양재 성찬위원 모집
모집: 매월 첫째 주일 성찬식 봉사
(한 달에 한 번, 시간 조절)
내용: 성찬 떡, 포도즙 준비 및 세팅 작업
장소: 경찬홀
문의: 윤석일 팀장(010-5477-1308)

기독교학교 더샘물학교 개교
일시: 4월 18일, 5월 16일
오전 10시 30분~12시
장소: 다샘물학교
www.tsmca.or.kr 참조

***게시판 광고 마감 목요일 오후 4시**

부천

032.322.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7:00/2부 오전 9:00/3부 오전 11:30/4부 오후 2:00/5부 오후 4:00(대청예배)/6부 오후 7:00(부흥예배)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5:20 분당

차세대 예배
영아부~오전 9:00, 11:30 / 유치부~오전 9:00, 11:30, 14:00
유년부~오전 9:00, 11:30 / 초등1부~오전 9:00
초등2부~오전 11:30 / 유초등부~오후 2:00
중등부~오전 9:00, 11:30 / 고등부~오전 9:00, 11:30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저녁예배 매주 오후 7:30

한사랑예배(탈북민) 매주 오후 2:00 3층 꿈이홀
사랑부예배(장애인) 매주 오전 11:30 3층 꿈이홀
어린이영어예배(JEM) 오전 9:00 기쁨홀
중국어예배 매주 오후 2:00 두란노홀

수원

031.895.6500

주일예배
1부 오전 7:00 / 2부 오전 9:00
3부 오전 11:30 / 4부 오후 2:00 / 5부 오후 7:00

대학청년(주일)
대학부 오후 2시(경찬홀) / 청년부 오후 3시(민음홀)

새벽예배 월~토 오전 5:20(본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30
수요온누리워십 매주 수 오후 7:30

차세대 주일예배
영아부 오전 9시, 11:30 드림홀
유아부 오전 9시, 11:30 조이홀
유치부 오전 9:00, 11:30 소망홀
유년부 오전 9:00(초1~3), 11:30(초1~2) 사랑홀
초등부 오전 9:00(초4~6), 11:30(초3~4) 경찬홀
소년부 오전 11:30(초5~6) 믿음홀
초등부 오전 9시 비전홀 / 고등부 오전 9시 믿음홀

차세대 영어예배 오전 11:30 비전홀

대전

042.825.3642

주일예배
1부 오전 9시 분당 / 2부 오전 11:30 분당
젊은예배 오후 2시 30분 본당
대학부 오후 2시 30분 누리홀

주중예배
새벽예배▶ 월~금 오전 5:20 분당
토요새벽기도회▶ 매주 토 오전 6:00 분당
수요오전여성예배▶ 매주 수 오전 10:00 분당
수요저녁예배▶ 매주 수 오후 7:30 분당

차세대주일예배
예교(36개월~7세) 오전 09:00
꿈땅(초1~초6) 오전 09:00
영아부 오전 11:30 유치부 오전 11:30
유년부 오전 11:30 소년부 오전 11:30
초등부 오전 11:30 중등부 오전 11:30
고등부 오전 9:00

남양주

031.565.9686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분당 / 2부 오전 11:30 분당
3부(청년) 오후 2:00 분당 / 4부(저녁) 오후 7:00 분당 [다문화] 주일 11:00 / 4층 온유홀

주중예배
힌디어 토요일 19:00 5층 믿음홀 / 네팔어 토요일 19:00 5층 소망홀 / 새벽예배(월~토) 오전 5:20 3층 본당 / 수요여성예배 오전 10:30 3층 본당 / 수요부흥예배 오후 7:30 3층 본당

차세대예배
영아부 오전 11:30 2층 예꿈홀
유치부 오전 9:00 2층 예꿈홀
유년부 오전 9:00 2층 꿈땅홀
초등부 오전 11:30 2층 꿈땅홀
중등부 주일 오전 11:30 기쁨홀
고등부 주일 오전 9:00 기쁨홀

평택

031.651.9680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분당
2부 오전 11:30 분당
3부 오후 2:00 분당(대학청년)

주중예배 및 모임
화요기도모임 화요일 오전 10:00 비전홀
수요오전여성예배 수요일 오전 10:30 본당
수요여성예배 수 오후 7:30 본당

차세대예배
예수님의꿈아이 오전 11:30 본관2층
꿈이자라는땅 오전 9:00 본관2층
파워웨이브 오전 11:30 파워웨이브교육관

새벽기도회 월~토 오전 5:20 분당

외국어예배
몽골어 예배 11:30 평택M센터 Love Hall
인도네시아어예배 11:00 인도네시아 헬터

인천

032.437.9686

※예배장소 및 시간에 대한 문의는 목회지원실(032-437-9686)로 연락바랍니다.

주일예배장소 4월
성인/차세대/사랑부예배
4/7, 14, 21, 28일: 송도 컨벤시아 (송도동 6-1)
파워웨이브(중고등부)예배 제너셀 7층(송도동 179-1)
대학청년부, 국제예배 제너셀 7층(송도동 179-1)

주중예배
수요여성/수요저녁/새벽예배: 제너셀 7층(송도동 179-1)

주일예배

제1240호 | 2019년 4월 7일(주일)

Onnuri

온누리교회

http://onnuri.or.kr

국내 온누리교회

- 서빙고
박종길 목사 (02) 793-9686 (대표)
04428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 양재
이상준 목사 (02) 573-9686(대표)
06752 서울시 서초구 바우포로 31길 70
햇빛선교센터
- 부천
윤길중 목사 (032) 322-9686
14508 부천시 원미구 평천로 589
- 수원
신기섭 목사 (031) 895-6500
17036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2077번길 80
- 대전
김상수 목사 (042) 825-3642-4
35234 대전시 서구 둔산로 64 온누리빌딩
3-6층
- 남양주
이해영 목사 (031) 565-9686-8 (대표)
11946 경기도 이천시 이문로 154 진성빌딩 2-5층
- 평택
손신국 목사 (031) 651-9680(대표)
17906 경기도 평택시 평택4로 26 2-3층
- 인천
서경남 목사 (032) 437-9686 (대표)
21908 인천광역시 연수구 테크노파크로 113
- 강동
노지형 목사 (02) 475-9686
05335 서울시 강동구 천호대로157길 14
나비빌딩 11, 12층
- 양지
도육환 목사 (031) 331-8171
17156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추계로62번길 20
- 안산 온누리M센터
노규석 목사 (031) 491-9660
15243 안산시 단원구 신천로 8

■기도처

- 태안온누리
임용성 목사 070-8627-7676
충남 태안군 태안읍 경이정3길 10
온누리교회 태안온누리
- 서산온누리
임용성 목사 (041) 665-9686
충남 서산시 쌍연남3길 9 서산온누리교회
- 동화온누리
엄정순 권사 (054) 673-7428
경북 봉화군 명호면 만리산길 613
- 진새골온누리
주수일 장로 (031)-767-2776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진새골길 166

해외 온누리교회

■미서부

- 엘바인
박신웅 목사 1-949-261-9100
17200 Jamboree, Irvine CA 92614 U.S.A.
- 로스앤젤레스
이정엽 목사 1-213-382-5658
743 South Grand View st.
Los Angeles CA 90057, USA
- 샌디에이고
이민욱 목사 1-619-847-4147
8990 Miramar Rd, Suite 275 San Diego,
CA 92126
- 산타모니카
정장철 목사 1-213-235-5791
1420 Yale St, Santa Monica,
CA 90404
- 괌
김형철 목사 1-671-734-8522
155 Father Duenas St, Mangilao Guam 96913

■미동부

- 보스턴
김철진 목사

- 1-781-933-7044
73 pine st, Wobum MA 01801 U.S.A.
- 네이퍼빌 시카고
이종재 목사 1-630-753-9191
1433 NMain St, Naperville IL 60563
- 노스 시카고
서재범 목사 1-847-571-8687
10 Deerfield Rd, Deerfield IL 60015 USA
- 뉴욕IN2
신상현 목사 1-212-427-2055
401 7th Ave.(18th Floor) New York, NY 10001
- 뉴저지
Marc Choi 목사 1-201-461-4010
1449 Anderson Ave., Fort Lee, NJ 07024

■미북부

- 포틀랜드
이성권 목사 1-503-628-2000
19660 SW Scholls Ferry Rd.
Beaverton, OR 97007 USA
- 앵커리지
박재영 목사 1-907-569-9191
4801 old seward HWY Anchorage, AK 99503
- 밴쿠버
송영동 목사 1-604-888-0092
19711 86th Ave.
Langley, BC V2Y 1Z5 Canada
Worship: Pacific Academy Auditorium 10238
168th Street, Surrey

■오세아니아

- 시드니
전현규 목사 61-2-9649-1180, 1190
18 MAIN Ave. Lidcombe NSW2141 Austria
- 오를랜드
유원록 목사 64-21-0810-3132
7 Tamdale Grove, Albany, Auckland,
New Zealand

■일본

- 동경
서현 목사 81-3-5937-3210
(169-0074) 3-39-7 Kitashinjuku, Shinjuku-ku,
Tokyo, Japan
- 오사카
이영선 목사 81-6-6121-2015
(542-0083)Naniwa 3F 1-3-19Higasisinsaitasi
Chuuku Osakasi Japan
- 우에다
하카타마 미키 목사 81-26-821-4566
(386-0032)Nagano-ken Ueda-shi Suwagata
1377-64 JAPAN
- 요코하마
니시야마 신이치 목사 81-45-641-6468
(231-0012)Yaomasa Bldg4F,3-63 Aioli-cho,
Naka-ku, Yokohama-shi, Kanagawa-ken,
Japan
- 야치요
요시하라 마나부 목사 81-47-482-1299
(276-0045)832-2, Oowada, Yachiyo-shi,
Chiba-ken, JAPAN
- 나고야
정호석 목사 81-52-938-5011
(454-0974) AICHI-KEN NAGOYA-CI NAK-
AGAWA-KU SHIMAI-CHO61 EHWDA DAIA-
MOND 2F
- 고토
권영환 목사 81-75-748-9303
(615-0854)Nisikyogoku Tsutsumisotocho
1-4(1F&2F),ukyo-ku, Kyoto-si

■중동

- 아부다비
김태만 목사 971-56-385-4238
villa no.23 next to Bright Beginning Nursery,
25th street, Al Mushrif Abu Dhabi, UAE

■동남아시아

- 베트남

정재욱 목사 84-8-5412-2773
SSL 20-1 Grandveiv C, Phu My Hung, Q7,
HCMC, Vietnam

■중국

- 롄징
강부호 목사 86-10-5301-9700
北京市 朝阳区 来广营西路 江大物业(内大地公司)
Beijingshi ChaoyangQu Laiguangying
Xilu Jiangdawuye (Dadigongsi)
- 단둥
채기석 목사 86-415-313-6811
中国 辽宁省 丹东市 开发区 口岸贸易区 1区 D组
102号 韩国人 教会 王英
ZHONGGUO LIAONINGSHENG DANDONG-SHI
KAIFAQU KOU'AN MAOYIQU 1QU DZU
102HAO
- 대련
강은수 목사 86-411-8228-5235
辽宁省 大连市 中山区 春园里 春海巷二巷 526路
炮台山终点站
Liaoning-Sheng Dalian-Shi Zhongshan-Qu
Chunyuan-Li Chunhaijieerxiang (526lu
Paotaishan zhongdianzhan)
- 심해
박만규 목사 86-21-5422-5801
中国 上海市 闵行区 漕宝路 1243号 3楼388室
Shanghai Minhangqu Caobailu 1243hao
yongweishangwudasha 3lou 388shi
- 청도
최영민 목사 86-532-8801-2930
中国 山东省 青岛市 崂山区 香港东路69号
凯旋山庄 27号楼 1楼 网点
Zhongguo Shandongsheng Qingdaoshi
Laoshanqu Xianggangdonglu69
Kaixuanshanzhuang27haolou 1lou Wangdian
CHINA

섬기는 분들

◆담임목사

이재훈

국내 온누리교회

◆캠퍼스 담당목사

- 박종길 이상준 윤길중 신기섭
김상수 이해영 손신국 서경남
노지형 도육환
- ◆부목사(전임)
김미향 강일하 강지영 권영환
권영갑 권진만 김경중 김관수
김대진 김도균 김도은 김미정
김병조 김상수 김성국 김성운
김소리 김승수 김승완 김승민
김영배 김영창 김요성 김용민
김윤식 김재식 김경숙 김정순
김정희 김종민 김종아 김종호
김철희 김태용 김현실 김홍주
노규석 노희태 박성근 박수환
박시형 박성근 박성민 박수환
박성진 박세웅 박철중 박태영
박영준 배행삼 변대섭 서승호
손정훈 송석근 송영동 송재호
신동식 신원식 스티브안 안광국
양성진 양재경 이성민 권영배
오은규 유윤상 원우영 윤정호
유승원 윤성원 유정현 윤기복
윤길중 윤성원 유정현 윤기복
이기원 이기진 이기훈 이길택
이민욱 이비오 이상진 이사진
이문재 이원진 이지원 이재원
이재정 이정환 이종현 이준호
이찬우 이해영 임용성 전신익
전재표 정상훈 정한호 정현석
정형근 조동욱 조병환 조바울
조준복 조현수 조오영 지대근
최성민 최성석 최승구 최용준
최혁준 한화수 홍기완 하원희
황재명 황종연

◆전도사(전임)

- 김해영 김기락 김재승 김진아
문정원 백인규 윤현규 김사무엘
이우람 이준인 임정현 최대홍
최성규 한은선 한영철
- ◆경배와찬양 목회자
하스데만 박이호
- ◆협동목사
곽상학 김도일 류모세 방선기
이기복 한정국
- ◆부목사(파트)
김기배 김바울 김종영 김창성
김해경 배대환 배대환 박주남
민현식 배대환 박지마 박철중
서수민 신정만 생애배부 안희진
이진아 유승민 유진아 윤지연
임선아 최희관 채이미

◆전도사(파트)

- 강성호 고주민 권은영 권영현
김성희 김경민 김도일 김세현
김소희 김승민 김수영 김연두
김세환 김은혜 김유민 김용태
김재식 김재식 김진아 김지선
김정희 김종민 김종아 김종호
김철희 김태용 김현실 김홍주
노규석 노희태 박성근 박수환
박시형 박성근 박성민 박수환
박성진 박세웅 박철중 박태영
박영준 배행삼 변대섭 서승호
손정훈 송석근 송영동 송재호
신동식 신원식 스티브안 안광국
양성진 양재경 이성민 권영배
오은규 유윤상 원우영 윤정호
유승원 윤성원 유정현 윤기복
윤길중 윤성원 유정현 윤기복
이기원 이기진 이기훈 이길택
이민욱 이비오 이상진 이사진
이문재 이원진 이지원 이재원
이재정 이정환 이종현 이준호
이찬우 이해영 임용성 전신익
전재표 정상훈 정한호 정현석
정형근 조동욱 조병환 조바울
조준복 조현수 조오영 지대근
최성민 최성석 최승구 최용준
최혁준 한화수 홍기완 하원희
황재명 황종연

◆지역장로

- 강기석 강인지 강찬석 고광필
구재영 권영석 권영현 김철준
김경진 김관수 김관수 김관수
김기태 김남원 김병철 김성준
김진래 김진택 김승우 김승민
김영배 김영창 김요성 김용민
김윤식 김재식 김경숙 김정순
김정희 김종민 김종아 김종호
김철희 김태용 김현실 김홍주
노규석 노희태 박성근 박수환
박시형 박성근 박성민 박수환
박성진 박세웅 박철중 박태영
박영준 배행삼 변대섭 서승호
손정훈 송석근 송영동 송재호
신동식 신원식 스티브안 안광국
양성진 양재경 이성민 권영배
오은규 유윤상 원우영 윤정호
유승원 윤성원 유정현 윤기복
윤길중 윤성원 유정현 윤기복
이기원 이기진 이기훈 이길택
이민욱 이비오 이상진 이사진
이문재 이원진 이지원 이재원
이재정 이정환 이종현 이준호
이찬우 이해영 임용성 전신익
전재표 정상훈 정한호 정현석
정형근 조동욱 조병환 조바울
조준복 조현수 조오영 지대근
최성민 최성석 최승구 최용준
최혁준 한화수 홍기완 하원희
황재명 황종연

◆지역장로

- 강기석 강인지 강찬석 고광필
구재영 권영석 권영현 김철준
김경진 김관수 김관수 김관수
김기태 김남원 김병철 김성준
김진래 김진택 김승우 김승민
김영배 김영창 김요성 김용민
김윤식 김재식 김경숙 김정순
김정희 김종민 김종아 김종호
김철희 김태용 김현실 김홍주
노규석 노희태 박성근 박수환
박시형 박성근 박성민 박수환
박성진 박세웅 박철중 박태영
박영준 배행삼 변대섭 서승호
손정훈 송석근 송영동 송재호
신동식 신원식 스티브안 안광국
양성진 양재경 이성민 권영배
오은규 유윤상 원우영 윤정호
유승원 윤성원 유정현 윤기복
윤길중 윤성원 유정현 윤기복
이기원 이기진 이기훈 이길택
이민욱 이비오 이상진 이사진
이문재 이원진 이지원 이재원
이재정 이정환 이종현 이준호
이찬우 이해영 임용성 전신익
전재표 정상훈 정한호 정현석
정형근 조동욱 조병환 조바울
조준복 조현수 조오영 지대근
최성민 최성석 최승구 최용준
최혁준 한화수 홍기완 하원희
황재명 황종연

◆지역장로

- 강기석 강인지 강찬석 고광필
구재영 권영석 권영현 김철준
김경진 김관수 김관수 김관수
김기태 김남원 김병철 김성준
김진래 김진택 김승우 김승민
김영배 김영창 김요성 김용민
김윤식 김재식 김경숙 김정순
김정희 김종민 김종아 김종호
김철희 김태용 김현실 김홍주
노규석 노희태 박성근 박수환
박시형 박성근 박성민 박수환
박성진 박세웅 박철중 박태영
박영준 배행삼 변대섭 서승호
손정훈 송석근 송영동 송재호
신동식 신원식 스티브안 안광국
양성진 양재경 이성민 권영배
오은규 유윤상 원우영 윤정호
유승원 윤성원 유정현 윤기복
윤길중 윤성원 유정현 윤기복
이기원 이기진 이기훈 이길택
이민욱 이비오 이상진 이사진
이문재 이원진 이지원 이재원
이재정 이정환 이종현 이준호
이찬우 이해영 임용성 전신익
전재표 정상훈 정한호 정현석
정형근 조동욱 조병환 조바울
조준복 조현수 조오영 지대근
최성민 최성석 최승구 최용준
최혁준 한화수 홍기완 하원희
황재명 황종연

◆지역장로

- 강기석 강인지 강찬석 고광필
구재영 권영석 권영현 김철준
김경진 김관수 김관수 김관수
김기태 김남원 김병철 김성준
김진래 김진택 김승우 김승민
김영배 김영창 김요성 김용민
김윤식 김재식 김경숙 김정순
김정희 김종민 김종아 김종호
김철희 김태용 김현실 김홍주
노규석 노희태 박성근 박수환
박시형 박성근 박성민 박수환
박성진 박세웅 박철중 박태영
박영준 배행삼 변대섭 서승호
손정훈 송석근 송영동 송재호
신동식 신원식 스티브안 안광국
양성진 양재경 이성민 권영배
오은규 유윤상 원우영 윤정호
유승원 윤성원 유정현 윤기복
윤길중 윤성원 유정현 윤기복
이기원 이기진 이기훈 이길택
이민욱 이비오 이상진 이사진
이문재 이원진 이지원 이재원
이재정 이정환 이종현 이준호
이찬우 이해영 임용성 전신익
전재표 정상훈 정한호 정현석
정형근 조동욱 조병환 조바울
조준복 조현수 조오영 지대근
최성민 최성석 최승구 최용준
최혁준 한화수 홍기완 하원희
황재명 황종연

◆지역장로

- 강기석 강인지 강찬석 고광필
구재영 권영석 권영현 김철준
김경진 김관수 김관수 김관수
김기태 김남원 김병철 김성준
김진래 김진택 김승우 김승민
김영배 김영창 김요성 김용민
김윤식 김재식 김경숙 김정순
김정희 김종민 김종아 김종호
김철희 김태용 김현실 김홍주
노규석 노희태 박성근 박수환
박시형 박성근 박성민 박수환
박성진 박세웅 박철중 박태영
박영준 배행삼 변대섭 서승호
손정훈 송석근 송영동 송재호
신동식 신원식 스티브안 안광국
양성진 양재경 이성민 권영배
오은규 유윤상 원우영 윤정호
유승원 윤성원 유정현 윤기복
윤길중 윤성원 유정현 윤기복
이기원 이기진 이기훈 이길택
이민욱 이비오 이상진 이사진
이문재 이원진 이지원 이재원
이재정 이정환 이종현 이준호
이찬우 이해영 임용성 전신익
전재표 정상훈 정한호 정현석
정형근 조동욱 조병환 조바울
조준복 조현수 조오영 지대근
최성민 최성석 최승구 최용준
최혁준 한화수 홍기완 하원희
황재명 황종연

◆지역장로

- 강기석 강인지 강찬석 고광필
구재영 권영석 권영현 김철준
김경진 김관수 김관수 김관수
김기태 김남원 김병철 김성준
김진래 김진택 김승우 김승민
김영배 김영창 김요성 김용민
김윤식 김재식 김경숙 김정순
김정희 김종민 김종아 김종호
김철희 김태용 김현실 김홍주
노규석 노희태 박성근 박수환
박시형 박성근 박성민 박수환
박성진 박세웅 박철중 박태영
박영준 배행삼 변대섭 서승호
손정훈 송석근 송영동 송재호
신동식 신원식 스티브안 안광국
양성진 양재경 이성민 권영배
오은규 유윤상 원우영 윤정호
유승원 윤성원 유정현 윤기복
윤길중 윤성원 유정현 윤기복
이기원 이기진 이기훈 이길택
이민욱 이비오 이상진 이사진
이문재 이원진 이지원 이재원
이재정 이정환 이종현 이준호
이찬우 이해영 임용성 전신익
전재표 정상훈 정한호 정현석
정형근 조동욱 조병환 조바울
조준복 조현수 조오영 지대근
최성민 최성석 최승구 최용준
최혁준 한화수 홍기완 하원희
황재명 황종연

◆지역장로

- 강기석 강인지 강찬석 고광필
구재영 권영석 권영현 김철준
김경진 김관수 김관수 김관수
김기태 김남원 김병철 김성준
김진래 김진택 김승우 김승민
김영배 김영창 김요성 김용민
김윤식 김재식 김경숙 김정순
김정희 김종민 김종아 김종호
김철희 김태용 김현실 김홍주
노규석 노희태 박성근 박수환
박시형 박성근 박성민 박수환
박성진 박세웅 박철중 박태영
박영준 배행삼 변대섭 서승호
손정훈 송석근 송영동 송재호
신동식 신원식 스티브안 안광국
양성진 양재경 이성민 권영배
오은규 유윤상 원우영 윤정호
유승원 윤성원 유정현 윤기복
윤길중 윤성원 유정현 윤기복
이기원 이기진 이기훈 이길택
이민욱 이비오 이상진 이사진
이문재 이원진 이지원 이재원
이재정 이정환 이종현 이준호
이찬우 이해영 임용성 전신익
전재표 정상훈 정한호 정현석
정형근 조동욱 조병환 조바울
조준복 조현수 조오영 지대근
최성민 최성석 최승구 최용준
최혁준 한화수 홍기완 하원희
황재명 황종연

소천

- 3/29(금) 성북 김인에 성도 부군상 고 이인규
- 3/30(토) 가정사역 신영규 집사 부친상 고 신종근
- 3/30(토) 노원 김현주 성도 부친상 고 김정수
- 3/31(주일) 중종로 강경희 성도 모친상 고 작옥연
- 3/31(주일) 양천 남기원 성도 부친상 고 남연우
- 3/31(주일) 시니어아카데미 고 탁연하 성도
- 4/2(화) 한강 강영희 권사 모친상, 정영택 장로
빙모상 고 김필순
- 4/2(화) 이수 김필연 집사 부친상 고 김상희
- 4/2(화) 일산 이종찬 성도 부친상 고 이영배
- 4/3(수) 송파A 이종규 성도 모친상 고 신순애
- 4/4(목) 강남D 노경한 집사 빙부상 고 이백희

온누리신문

등록번호 다-3802호
발행인: 이재훈
편집국장: 이인용
편집부장: 김남원
기자: 정현주, 김현준, 김영선, 권찬송, 홍하영
140-026 서울시 용산구 이촌로 347-11
전화: 02-3215-3193 홈페이지: news.onnuri.org
온누리신문은 재생용지를 사용합니다

온누리
복지재단

군포하노람자중장기청소년년례 청소년 입소, 입교생
모집
내용: 기출 및 가정복귀가 어려운 남아청소년 월터 입
소 및 하노람교육(교육청 지정 대안학교) 입교
대상: 입소생(15-20세) / 입교생(경기도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
문의: 유호연 팀장(031-399-7997)

온누리요양센터 자원봉사자 모집
내용: 찬양, 성경암기, 전도봉사 등
문의: 이진숙 복지팀장(031-334-9090)

시립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후원물 모집
내용: 외상 어르신들을 위한 후원
후원물품: 물품이 쓰여 삼푸, 바디워시
문의: 송유라 복지사(02-3407-2774)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55세 이상 지역주민 무료취업
지원
신청자격: 서울시 거주 만 55세 이상 구직자(신분증 지참 방문
접수)
주요직종: 경비원, 청소원, 요양보호사, 주차관리원, 조리원 등
문의: 박나희 사회복지사(02-796-7665)

청파노인복지센터 경로식당 봉사자 요청
활동일시: 화, 수, 목 9:30-14:30(식사시간 포함)
문의: 이기원 팀장(02-703-6011)

번도코이노니아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자원봉사자
문의: 이영현 팀장(02-985-3609)

제 정

십일조 계좌: 하나은행 573-810034-10105
해의선교계좌: 하나은행 573-810034-09105
비전위원장: 한금: 하나은행 573-910001-23005
*은행계좌로 송금시 이름과 주민번호 앞 네 자리 또는
여섯 자리(김도모501010)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 담

■ 서빙고
온누리 상담실(선교관 지하 1층)
상담접수: 02-793-2997~8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 오전 10시-오후 3시)
면접상담: 신앙과 심리상담(개인, 부부, 아동, 청소년, 가족)
심리검사: 각종 심리검사, U&A(학술성격 유형(진로) 검사)
특수상담: 법률상담 둘째 주일 오전 10:30-12:00
인터넷 중독 상담

■ 양 재
온누리상담센터(원형커피숍지동문안쪽)
상담접수: 570-7536-7(상담예약 필수)
개인, 부부, 가족, 아동, 청소년(영어 상담 가능)
화-금: 오전 10시-오후 5시, 토-일: 오전 10시-오후 3시
각종 심리검사 및 집단 치유 프로그램
법률 상담: 일요일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세무 상담: 둘째 주일 오전 10시 30분-11시 30분

결혼·광고

■ 결혼

4월 13일 토요일 오전 11:00 서빙고 본당
우명희 목사의 아들 민준기(인천동양교회)
김호연 성도의 딸 김혜원(온누리교회)

4월 13일 토요일 오후 2:00 서빙고 본당
오기호, 이현수(온누리교회 집사, 집사)의 아들
오세건(온누리교회)
김수광, 이명희(제일평화교회 장로, 권사)의 딸
김희경(제일평화교회)

■ 광고

CMN시온팀 해외 이웃리치 모집
일시: 7월 6일~14일
장소: 서부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아비장
비용: 의사 50만원, 일반인 25만원(항공권 별도)
분야: 의사, 간호사, 약사, 아린이사역, 일반 봉사자
문의: 이백관 팀장(010-3388-5331)

창조신앙아카데미
일시: 5월 15일~6월 12일 오후 7시~9시
장소: EM전시관(신동아센터 뒷편)
문의: 창조과학선교팀(010-7292-2349)

CGNTV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

매주 주일 오후 8시 30분 방송

가정예배는 선택이 아닌 필수
온 가정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날까지, 아무리 바빠도 가정예배!

MC 가수 이무송

패널 권혁승 명예교수, 백은실 사모, 개그우먼 정지민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가정예배 가이드

1편 가정예배, 왜 중요한가? (4월 7일)

2편 가정예배의 '찬양과 기도' (4월 14일)

3편 가정예배 순서 '말씀, 나눔과 적용' (4월 21일)

4편 가정예배 Q&A (4월 28일)

